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No.48
2010.02.10/02.17
2018 평창의 꿈
밴쿠버에서 보여주자
설 전후 교통·물가·신종플루 대책
가짜 '미소금융'을 조심하세요

대학생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사회인의 능력으로 상환합니다

호텔조리학과 **최원준군**에게 빌려주고
한식조리사 **최원준씨**에게 받습니다

경영학과 **김다영양**에게 빌려주고
해외펀드매니저 **김다영씨**에게 받습니다

항공기계과 **정건우군**에게 빌려주고
항공정비사 **정건우씨**에게 받습니다

반갑다 『든든학자금』

2010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출학자금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걱정없이 -
-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
-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

이제, 등록금 걱정없이 꿈의 전원을 항상 켜두세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대출대상 : 소득7분위(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인정액 4,839만원) 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상환방법 :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진정한 스포츠 강국 동계 종목 투자에 달렸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열흘 앞둔 지난 2월 2일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릉선수촌에서 출정 준비를 마쳤다.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우리 선수단은 세계 10위권 수성(守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야무진 표정에 흰색 단복을 입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우리 국민 모두의 아들딸들이 참으로 늠름하고 자랑스럽지 않은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1988년 캘거리 대회에 이어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새삼 언급하자면 지난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던 강원도 평창에 역전패를 안기고 개최가 결정된 바로 그 대회다.

지구촌 최대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전 세계 85개국에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7일 동안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우리 선수단은 2006년 토리노 대회에 이어 종합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다양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쇼트트랙 메달 획득 일변도에서 벗어나 김연아 선수가 참가하는 여자 피겨스케이팅과 이규혁, 이강석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사상 첫 금메달이 기대되는 등 메달의 다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선진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기에 금메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46명의 선수 모두를 금메달리스트로서 기억하고 격려해주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보태진다면 우리 동계스포츠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높기에 더욱 기대감과 설렘을 느낀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쇼트트랙, 그리고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그리고 영화를 넘어 현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스키점프,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미래를 개척해온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그리고 스키종목 선수들!

동계 종목의 특성상 시설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꿈꾸는 우리나라가 동·하계를 아우르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통한 환경 조성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스포츠 인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선진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기에 금메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46명의 선수 모두를 금메달리스트로서 기억하고 격려해주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보태진다면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온 국민과 함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한다. G

Weekly
2010.02.10 / 02.17
No.48(통권 149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됐다.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투혼을 불사를 46명의 태극전사들이
장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캐나라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성화 봉송에
나선 '피겨 여왕' 김연아.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2.10 / 02.1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평창의 꿈 밴쿠버에서 보여주자

눈과 얼음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스포츠 드라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2월 12일 드디어 막을 올린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 동계올림픽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이다.
쇼트트랙 이외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으로.
하지만 올림픽에는 금메달 이상의 감동이 있다.
한국 선수단 모두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도전정신.
밴쿠버의 빙판과 눈밭을 다 녹이고도 남을
태극전사들의 열정을 만나보자.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47호(2월 3일자) 기획특집 '도전! 일자리 찾기'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신명나는 일자리 많이 생기기를~"

"대기업과 공기업. 20대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겠지요? 그러나 힘겹게 들어간 직장인데도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보다 사회의 잣대에 맞춰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젊은이들이 토익, 토플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학원과 전문학교 등을 통해 진정 좋아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_한옥정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생 누나부터 할아버지까지 가족 일자리 찾기' 기사를 읽고 우리 가족이 찾아야 할 일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_이순호

"유연근로제 도입, 1인 창조기업 지원과 육성,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등 최근 새롭게 시도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일자리가 넘치는 201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유은경

"일자리 맞춤 프로그램, 대환영!"

"지난해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면서 남편과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특집 기사 중 '여성취업' 관련 기사를 읽고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전업주부로만 살았지만 취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맞춤 프로그램에 참여해 늦어도 올여름에는 '첫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_양정숙

47호 포커스 '베일 벗은 명품 복합도시 새만금'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우리 고장의 새만금이 명품 복합도시 '아리울'로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관심이 모아질 때 아리울이 명품 복합도시로 비상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아리울을 찾아 현장 학습을 다녀올 생각입니다."_호순이

47호 이슈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12억 인구의 소비시장을 갖춘 나라, 세계 경제성장의 핵으로 부상한 인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한국경제 도약에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양국의 발전과 함께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선순환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_ddpanyoo

취업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알립니다

▶▶ 태극전사들 힘내세요! 밴쿠버 동계올림픽 응원릴레이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열린 2월 2일부터 귀국일인 3월 2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함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0 승리를 넘어 감동으로, 으라차차!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붙인 이 이벤트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경기 일정을 중심으로 각 종목의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달려라! 밴쿠버까지, 대한민국 응원릴레이', 메달 획득과 관계없이 누리꾼이 금메달리스트를 선정하는 '국민감동 금메달, 그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경기 종목 등 동계올림픽 관련 퀴즈가 진행되는 '도전! 동계올림픽 골든벨' 등이다.

이 중 누리꾼들이 선정하는 메달상은 각 경기마다 최선을 다한 선수를 뽑는 '뜨거운 열정상'과 다음 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를 선정하는 '내일은 금메달상'으로 나뉘는데,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승리를 넘어서는 감동과 희망을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Tel **02-3704-9648**
fighting.korea.kr/2010_vancouver

▶▶ 국군관현악단 해체 55년 만에 재창단

국방부는 장병들의 정서 순화와 사기 증진을 위해 국군관현악단을 창단한다. 1955년 해체 이후 55년 만에 재창단된 국군관현악단은 2월 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창단 기념 연주회를 갖고 앞으로 다양한 군 관련 행사를 통해 부활의 선율을 그려낼 예정이다.

국군관현악단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내에 67명 규모로 편성됐다. 기존 관악 요원 22명에 45명의 현악 요원이 새롭게 투입됐다.

이로써 현악 전공자들의 지속적인 기량 연마가 가능해져 군악 연주의 꾸준한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정부의 주요 행사 참여 및 민간단체와의 음악 교류도 현재보다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창단사를 통해 "국군관현악단은 특유의 파워와 남성적인 음색으로 민간 연주 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쳐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방부 대변인실 Tel **02-748-6721~6**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2월 2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1. 운동 경기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의 목에 걸어주는 것.
4.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 "그는 OO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6.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정상을 달리는 종목. 빙상의 예술. 동계올림픽 종목.
9. 지렛대의 준말.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떤 기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10. 영화 등 영상을 투영하기 위한 백색 또는 은색의 막. 영화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요즘은 여러 개의 이것을 설치하여 여러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대부분이죠.

세 로

2. 수출 따위로 돈(dollar)을 벌게 해주는 상품이나 사람. '머니박스'라고도 한다. "반도체 등 IT산업은 대한민국의 주요 OOOO이다."
3.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중의 하나로, 산의 중턱에 눈과 얼음으로 만든 코스를 강철제 썰매로 활주하는 경주. 2인승은 2회, 4인승은 4회 활주하여 합계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죠.
5. 〈손자〉에 나오는 말로,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OOOO면 백전백승이라."
7.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 "우리는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한 OO이다."
8. 서양 과자를 통틀어 부르는 말. "생일 축하 OOO를 자르다."

〈Weekly 공감〉 46호(1월 2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다이어트 **3** 복학 **5** 원자력발전소 **8** 비단강 **9** 출발
세로 **2** 어물전 **3** 복원 **4** 학자금대출 **6** 발송비 **7** 소양강

〈Weekly 공감〉 46호 '공감 퍼즐' 당첨자
남 건 ·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박민기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신용희 · 대구 달서구 죽전동
안준희 ·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2리
장춘정 · 전북 남원시 동충동

독자들의 쓴소리, 단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공감

회사원 정혜연(29) 씨는 〈Weekly 공감〉 열혈 독자다. 알짜배기 정책들을 한데 모아 알려주는 〈Weekly 공감〉을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됐다는 것. 정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Weekly 공감〉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Weekly 공감〉을 받아보게 된 계기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처음 공감을 접했어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이슈들을 상세히 알려주는 잡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많아서 즐겨 보고 있습니다.

〈Weekly 공감〉이 왜 마음에 들었나요.

정부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론에서는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데다 진행하려는 것, 진행된 것에 대한 소개와 평가만 해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어요. 〈Weekly 공감〉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줘서 좋았어요.

〈Weekly 공감〉에 꼭 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직 직장 경력 4년차밖에 되지 않지만 주변에서 퇴직하는 분들을 보면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게 돼요. 정부가 은퇴자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Weekly 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책기사가 많아 도움도 되지만 읽다가 지치는 때도 있어요. 중간 중간 소프트한 기사나 인물 인터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TV에 나와 택시기사로 하루를 보내는 내용을 봤는데, 이처럼 국민과 가까이 지내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고위공무원들의 인터뷰 기사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배을순 부산 북구 용수로

1. '한·인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기사를 읽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두 나라가 과거의 협력동반자 관계보다 한층 격상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게 돼 반가웠습니다. 인도는 특히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니 수출은 물론 좋은 자원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역량도 4년 내로 두세 배 확대될 전망이라니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합니다.
2.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작년보다 더 뽑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업들의 고용 확대가 부디 청년실업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도서관을 찾거나 빈둥거리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세요.
3. 가족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설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한 생활정보 기사가 실렸으면 합니다. 설 연휴를 음식 장만과 손님 접대로 힘겹게 보내야 하는 주부들을 위한 건강정보도 곁들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도형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1. '자전거도 음주는 No! 자전거 안전종합대책 마련' 기사를 보면서 자전거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빨리 확충됐으면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 사고가 빈번해질 수 있으니 자전거 안전 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2. '청년취업 해법 기술에 있소이다'를 읽고 이제는 기술과 기능 보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직장에서 장수하려면 앞으로는 기술자격증 하나 정도는 따야 하리라고 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 문만 두드리지 말고 전망 좋은 기술자격증이나 면허 취득에 시간을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곧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선물로 좋은 실용적인 상품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졸업 선물로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나 수백만원대 슈트를 사줘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는데 제발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17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2018 평창의 꿈, 밴쿠버에서 보여주자'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4江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명박 대통령이 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성장 홍보대사'인 가수 겸 연기자 비, 탤런트 이다해 씨 등과 환담하고 있다.

녹색성장, 나부터 실천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방안 등 7대 실천 과제 수립

준비는 끝났다. 이제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녹색성장'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 모드'로 돌입했다. 2010년은 녹색성장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를 '녹색성장 전략 실행 모드 돌입의 해'로 정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7대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에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통해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에는 그동안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번 보고의 기본 취지이다. 이번 보고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오는 7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엔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과학기술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

성장 7대 실천 과제'에서도 녹색기술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 마련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실행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조기 상용화가 시급한 △차세대 2차전지 △LED조명 디스플레이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이산화탄소(CO_2) 포집 △고도 수처리 등의 기술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지정하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2차전지의 경우 부품, 소재 등 취약 기반을 개선하고 원천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마스터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방안에서는 녹색기술 개발의 사례와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농가 경영비와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실천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열을 흡수, 증폭해 활용하는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2백50헥타르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 또한 축산 바이오가스 시스템의 농가 보급을 늘려 2012년까지는 전체 가축 분뇨의 90퍼센트를 자원화해나갈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20% 감축 목표

한편 이번 회의에선 녹색생활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낮은 점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생활 속의 작은 '녹색 실천'을 당부했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각 가정의 실천과 공감대 형성이 녹색성장의 성공 열쇠라고 보고 '7대 실천 과제'에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Me First' 실천 과제를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20퍼센트 감축하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00년 하루 1만1천4백 톤에서 2007년 1만4천1백 톤으로 연 3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다. 버려지는 음식물의 경제적 가치는 2005년 기준 18조원, 2012년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선 전국 1백44개 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실천 가능한 쓰레기 감량화 기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녹색운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2대 중점 과제'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2백만 가구 탄소 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 폐(廢)휴대전화, PC 등 재활용품 수거 운동을 벌이는 한편, 녹색생활 실천 차원의 '아나바다' 운동을 활성화한다.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해 녹색생활 실천을 이끌게 하고, 지역 공립도서관을 녹색성장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G

글 · 유재영 기자

녹색성장 7대 주요 실천 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방안 마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녹색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들의 창업을 적극 유도한다. 2013년까지 녹색기술 전문벤처 1천 개를 육성(올해까지 1백 개)한다.

 #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국가의 주력산업을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 핵심 녹색산업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녹색화를 유도한다.

 # 녹색 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을 도입한다. 더불어 '녹색 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 개편 오는 3월 가스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다. 현재 배기량 기준에 따른 과세 기준도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한다.

 #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린에너지 패밀리 등 범국민적인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탄소캐시백 제도 시행을 통해 가정 등의 참여 수단을 확대한다.

 # 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의 방향은 '투 트랙'이다.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비·이다해, 녹색에 빠져들다

조영철 기자

가수 겸 연기자인 비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2월 3일 '녹색성장 홍보대사'가 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녹색성장 홍보물에 출연하고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보스포럼에 대통령 수행한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

"개도국·선진국 잇는 '세계의 다리' 대한민국 위상 회의장마다 화제"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에 이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척에서 수행한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을 만났다. 신 보좌관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영국은행 고문,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거쳐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금융위기 전문 국제경제통(通)'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다보스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의 회의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다분히 '학자풍'인 신현송(51)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은 2월 4일 청와대에서 기자와 만나 다보스포럼에서의 가장 인상적인 일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다보스포럼, 정식 명칭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정상 경제포럼이다.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특별연설을 했다. 그것도 특별연설을 하는 4개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연설을 했다. 그랬기에 그 준비에 특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새벽 6시 취리히의 호텔을 출발해 다보스행 기차를 탔습니다.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몇 시간 뒤 있을 특별연설을 위해 연설문을 다듬느라 머리를 맞대고, 차창 밖으로 흰 눈이 펑펑 내리고…. 기차 안의 뜨거운 열기와 차창 밖의 차가운 고요가 마치 한 폭의 풍경처럼 떠오릅니다."

신 보좌관은 지난 12월 28일 임명됐다. '국제경제보좌관'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의 중간급으로 지난해 8월 신설됐다. 초대 국제경제보좌관인 그는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안식년을 받았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 보좌관은 옥스퍼드대 교수, 런던정경대(LSE) 교수 등을 지냈으며 영국은행(BOE) 고문,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로도 일했다.

대통령을 수행해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가슴 벅차했다는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

국제경제보좌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제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국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보좌, 세계 경제동향과 정세 등을 보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또 대통령 해외순방 때 동행하거나 해외 인사 면담 때 자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G20 정상회의 준비입니다. 실무자들과 협의해 의제 설정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동아DB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무엇입니까.

주요 내용은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조영철 기자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굳이 한국을 내세우지 않아도 회의장마다 한국이 화두였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정상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면 강대국에 밀려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몰려드는 외국의 면담 요청을 골라 받는 상황이어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우선 그동안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이 강조됐습니다. 각종 금융규제, 감독체제의 개혁과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이 그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번 특별연설에서 제안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까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실물경제는 튼튼한데 금융위기로 한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단기자금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대한 IMF의 지원조건이 부적절했다는 데 모두 동의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한국에 제2 외환위기설이 제기됐을 때 미국이 제공한 통화 스와프처럼 조건 없이 제공하는 통화 스와프 제도가 과거에도 있었더라면 외환위기 극복이 좀 더 쉬웠을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타격이 작았던 것도 그러한 통화 스와프를 글로벌하게 체결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제안한 비즈니스 서밋도 글로벌 공조의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가 대공황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위기는 겪고 있어도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G20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비즈니스 서밋은 이제 민간 부문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그간 정부 간 공조로 이뤄진 경제위기 극복이 이제 민간 중심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장기적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특별연설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처지가 바뀐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를 잇는 가교국가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지에서 가진 각국 정상 토론회에서도 즉석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숫자까지 인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좌중이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으로서 다보스포럼을 지켜본 소감은.

다보스에서 만난 한 우리나라 기업인이 그러더군요. 이번 다보스처럼 '체면'이 선 적이 없다고요. 한국의 밤 행사가 함께 열리기도 했지만, 굳이 한국을 내세우지 않아도 각 회의장마다 한국이 화제에 오르고 어디에서나 한국이 화두였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정상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면 강대국에 밀려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몰려드는 외국의 면담 요청을 골라 받는 상황이어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간 학자로 살아오다 처음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도 조국이 더 큰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기동전단의 창설로 우리나라도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먼바다까지 철통 방어”

大洋해군 ‘기동전단’ 떴다

먼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대양해군을 가진 나라만이 적을 이길 수 있다. 2월 1일 창설된 우리나라 대양해군의 주역 제7기동전단은 평상시에는 말라카해협이나 대만해협에 나가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동해나 서해로 들어와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월 1일 창설된 ‘대양해군’의 주역 제7기동전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7기동전단은 대한해협에서 필리핀, 말라카 해협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수출입 물자의 해상수송로 보호 작전, 국제 분쟁지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원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기동전단이 커지면 기동함대가 된다. 왜 대한민국은 기동함대를 가져야 하는가.

가난한 나라는 감히 바다를 지키지 못한다. 바다를 지키려면 큰돈이 들어가는 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는 해안에 설치한 포(해안포)로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막는다.

19세기 말의 조선이 이런 경우였다.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는 강화도 해안에 포진한 조선군(육군)이 바다로 들어온 미군 및 프랑스군과 싸운 전투다. 지난 1월 말 북한군은 서해 5도 일대에서 해안포를 쐈는데, 이것도 이런 연습을 해본 것에 해당한다.

함정에 설치된 함포의 능력은 해안포보다 못하다. 해안포는 단단한 육지에 설치돼 있기에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지만, 함포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 실려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해안포는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함포의 크기는 배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함포의 위력은 대체로 해안포보다 작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작은 해군은 해안포가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연안에서만 작전을 하기에 ‘연안해군’으로 불린다.

힘센 나라는 해안포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먼바다로 나가 바다를 건너오는 외적을 막는다. 먼바다는 풍랑이 크기에 큰 배가 있어야 한다. 몇 달 동안 먹고 쓸 식량과 연료와 탄약을 갖고 있어야 하니 덩치 큰 배는 필수품이다.

연합

	세종대왕함(이지스함)	독도함(수송·상륙함)	문무대왕함(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구축함)
길이/폭/배수량	166m / 21m / 7,600 t	199m / 31m / 14,340 t	150m / 17.4m / 4,500 t	149.5m / 17.4m / 4,000t
최대속도	30노트 (56km)	23노트 (43km)	29노트 (54km)	30노트 (56km)
최대 항속거리	9,900km	18,520km	1만2,000km	7,400km
승조원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250여명
진수 연도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무장 및 기타	대함·대공 유도탄, 함포, 대유도탄 방어유도탄, 국산수직발사기, MK45Mod4구경 127mm 함포, 근접방어 체계(CIWS) 골키퍼, 경어뢰, 전자전 시스템, 헬기 2대 탑재 등	헬리콥터 7대, 전차 6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700여 명, 상륙돌격장갑차 7대 등 탑재	5인치 함포, 대공·대함 유도탄 수직 발사대, 대함 유도탄 방어용 무기, 잠수함 공격용 어뢰, 헬기 2대 탑재 등	대함·대공 유도탄, 대 유도탄 방어유도탄 램(RAM), MK-41 수직발사 시스템, 근접방어무기 체계(CIWS) 골키퍼, 5인치 함포 1문, 헬기 2대 탑재 등

동아DB

먼바다로 나가 작전할 수 있는 해군을 '대양해군'이라고 한다. 대양해군 중에는 그 세력이 워낙 커서 상대 해군을 궤멸시키고 상대국에 상륙해 쳐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해군은 막강한 함정은 물론이고 적 해안 세력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 그리고 적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지상전 부대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초대형 대양해군은 현재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연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領海)로 하기에, 세계에는 넓고 넓은 공해(公海)가 펼쳐져 있다. 미 해군은 공해에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함대를 배치해놓고 있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대양해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이고 인도와 중국, 한국, 스페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세계 최고 조선(造船) · 전자 기술로 해양 강국 반열 올라

같은 대양해군이라도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대양해군을 '호위함대'로 부르는데, 호위함대의 규모는 한국 기동전단의 4배가 넘는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해군은 중소형 항공모함을 갖고 있어 대양을 건너가 적국 해안에 지상군을 상륙시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은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과 전자산업 등이 있기에 기동전단을 만들어 해양 강국 반열에 명함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기동전단은 '작지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동전단은 2척(율곡이이함은 하반기 배치)의 이지스 구축함과 6척의 일반 구축함, 그리고 10대의 헬기로 구성된다(최대 16대까지 가능). 여기에 대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에 16대의 헬기와 공기부양정, 수륙양용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대형상륙함 '독도함'을 붙이고, 10일 이상 잠항이 가능한 1천8백 톤급의 잠수함 4척을 더하면 소규모 상륙작전도 감행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

기동전단의 핵심인 두 척의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형 토마호크'인 현무-3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미사일은 5백여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돼 5미터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초정밀 무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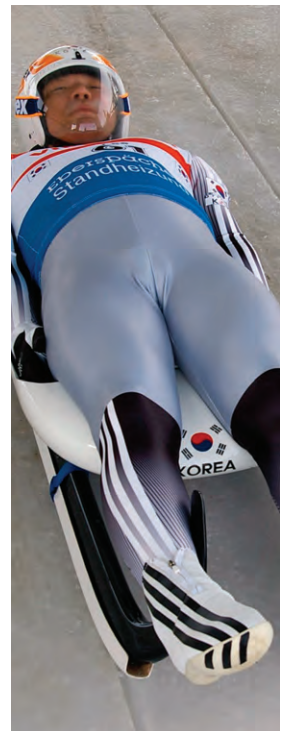
원유, 곡물, 원자재 등 전략물자가 들어오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도 기동전단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기동전단은 남해 한복판 제주에 만들고 있는 기지를 모항으로 사용한다. 이 기지에서 정비한 후 식량과 연료를 보급받아 말라카해협이나 대만해협까지 나가 작전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동해나 서해로 들어와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다.

기동전단이 두 배, 세 배로 커지면 기동함대가 된다. 기동함대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은 일본이나 영국에 버금가는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G

글 · 이정훈(동아일보 논설위원)

기획특집

대한민국, 밴쿠버를 녹인다

눈과 얼음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스포츠 드라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2월 12일 드디어 막을 올린다.
빙판 위의 아름다운 결투 피겨스케이팅, 찰나를 다투는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무한고공이 두렵지 않은 스키점프, 스피드의 한계에 도전하는 바이애슬론·봅슬레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의해 한국 동계올림픽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이다.
쇼트트랙 이외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으로.
하지만 올림픽에는 금메달 이상의 감동이 있다.
한국 선수단 모두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도전정신.
밴쿠버의 빙판과 눈밭을 다 녹이고도 남을 태극전사들의 열정을 만나보자.

혹독한 훈련 외로운 도전 땀흘린 선수들에게 박수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출전 준비를 마쳤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 종합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한 메달 경쟁과 그보다 더 뜨거운 도전의 열정들, 그 열기 속으로 빠져들어보자.

'뜨거운 가슴으로(With Glowing Hearts)!'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2월 12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선수단은 2월 2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결단식을 갖고 '2회 연속 종합 10위권 진입'을 다짐했다.

2월 28일까지 17일간의 열전(熱戰)이 펼쳐지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캐나다 밴쿠버와 인근 지역인 리치먼드,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인 휘슬러에서 총 80개국의 선수와 임원 5천5백여 명이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8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된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로 캐나다는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가 됐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공식 엠블럼은 밴쿠버 원주민들이 인간을 본떠 만든 석상인 '이눅슈크(Inukshuk)'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졌다. 희망, 환대, 우정을 상징한다. 공식 마스코트는 캐나다 원주민의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을 형상화한 미가(Miga), 콰치(Quatchi), 수미(Sumi)다. 미가는 바다곰 형상의 동물을, 콰치는 인간 비슷한 동물로 알려진 빅풋(Bigfoot)을 캐릭터화했다. 천둥새의 날개를 달고 흑곰의 털을 가진 수미는 환경보호를 상징한다.

>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태극전사가 메달을 따는 건 아니다. 비인기 종목이 대부분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은 메달보다는 자신들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 출전 자체가 '영광'인 셈이다. 이런 선수들에게 더욱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등 금메달 5개 목표

공교롭게도 밴쿠버는 강원도 평창의 첫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 시도를 좌절시킨 '라이벌' 도시다. 밴쿠버는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평창과 '혈투'를 벌였다.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밴쿠버 올림픽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는 평창이 이기면서 개최가 유력했다. 하지만 곧 베이징이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자 '같은 아시아권에 동계와 하계올림픽을 몰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 평창은 2차 투표에서 밴쿠버에 쓴잔을 마시고 제21회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내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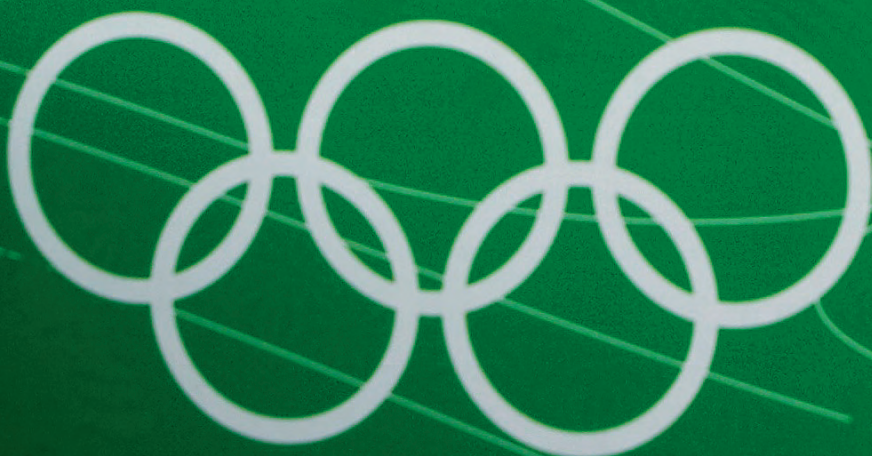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5종목에 46명의 선수(남자 27, 여자 19)를 출전시킨다. 종목별 감독과 코치 등을 포함하면 총 83명. 출전 선수 46명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며, 임원을 포함한 선수단 규모는 솔트레이크시티 대회(75명)를 뛰어넘는 최다 인원이다.

2월 2일 열린 결단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박성인 한국빙상연맹회장이 결단식을 가진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답사를 했다. 한국 선수단은 2월 5일 캐나다로 출발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훈련 중인 김연아 선수는 첫 경기가 열리는 2월 23일 이전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20·고려대)를 비롯해 '효자 종목' 쇼트트랙, 남녀가 유망한 스피드스케이팅까지 5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대교체가 이뤄진 쇼트트랙은 김동성, 안현수와 같은 간판스타는 없지만 이미 올림픽을 경험한 이호석(24·고양시청)을 비롯해 성시백(23·용인시청), 곽윤기(21·연세대)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선 남자대표팀 맏형 이규혁(32·서울시청)과 이강석(25·의정부시청)이 금빛 활주에 나서고, 여자대표로는 이상화(21·한국체대)가 5백미터 주종목에서 금메달을 기대한다.

한국은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로 종합 7위를 기

AP

제21회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밴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 김연아 선수
경기도 이곳에서 펼쳐진다.

동아DB

2월 2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박성인 선수단장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록한 바 있다. 당시 6개의 금메달 모두 남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안현수, 진선유 선수가 3관왕에 올라 거둔 성적이다.

한국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대표팀을 처음 출전시킨 이후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때 김기훈의 쇼트트랙 금메달로 첫 금메달을 따냈다. 이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동계스포츠는 총 4번에 걸쳐 올림픽 종합 10위권에 진입하며 '선진국의 스포츠'로 불리는 동계 종목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메달보다 더한 감동이 있는 것이 올림픽이다. 1993년, 사계절이 여름인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의 좌충우돌 동계올림픽 도전담을 담은 영화 〈쿨 러닝(Cool Running)〉이 올림픽의 감동에 대해 단상(斷想)을 하게 만들었다면, 지난해 '한국판 쿨 러닝'으로 불린 '국민 영화' 〈국가대표〉는 피부에 와 닿는 동계올림픽 감동 스토리를 전해줬다.

한국은 이번 밴쿠버 올림픽에 영화를 통해 '국민 종목'이 된 스키점프에 3명이 개인 메달을 목표로 출전한다. 영화 덕에 큰 관심을 모았던 강칠구 선수가 출전권을 끝내 얻지 못해 단체전 출전은 좌절됐다. 또한 봅슬레이는 2인승 출전이 좌절됐지만 4인승은 올림픽 사상 첫 출전권을 획득해 자랑스럽게 출전했다.

물론 모든 태극전사가 메달을 따는 건 아니다. '영화 덕'을 본 스키점프를 비롯해 대부분 비인기 종목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은 메달보다는 자신들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출전 자체가 '영광'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올림픽에서 스키 알파인 종목은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설원 위

한국 선수단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2월 12 ~ 28일)

종목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일
개·폐회식		개																폐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F	F	F	F	F	F		F	F		F			P	F	
	쇼트트랙		P F				P F			F				P F		F		
	피겨스케이팅												P		F			
스키	알파인스키										F			F		F	F	
	크로스컨트리				F													
	스키점프	P	F						P	F								
	프리스타일스키		F															
	스노보드						F											
바이애슬론			F	F		F		F										
봅슬레이										P	F					P	F	
스켈레톤								P	F									
루지			P	F														

P 예선 F 결선

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크로스컨트리는 중위권만 진입하면 금메달 못지않은 잔치 분위기가 될 것이다. 스키와 사격이 어우러진 바이애슬론은 30위권이면 성공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메달보다 중요한 게 격려와 관심이다.

캐나다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 빙상장과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 7개 경기장을 새로 만들었다. 또 알파인스키 슬로프 등 4개 경기장을 보수하는 등 이번 올림픽 준비를 위해 무려 17억 달러(한화 약 1조8천7백억원)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다.

개막식이 열리는 밴쿠버의 BC플레이스 스타디움은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경기장으로 4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공기 지지 방식의 덮개로 씌운 것이 특징.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새 단장을 했다.

이처럼 동계올림픽이란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에 캐나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스포츠의 열정 이상의 막대한 부가가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수천명의 선수와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전 세계 수십억 시청자를 대상으로 TV방송이 생생한 경기 장면을 전해준다. 관광 수입에 방송중계권 판매, 광고 수입 등은 막대한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다.

캐나다, 동계올림픽에 17억 달러 투입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파급효과로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의 0.4퍼센트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고용 유발효과가 뒤따른 것은 물론이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에는 무려 15조원의 파급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사면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 활동에 나서게 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IOC 위원 투표로 2011년 7월 6일 확정된다.

만약 평창이 꿈을 이루면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전부 개최하는 나라로 올라선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부자들의 축제’로 여겨지는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 라이선스’나 다름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은 “올해는 밴쿠버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남아공 월드컵, 광주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에서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몰려 있다”며 “스포츠를 통해 우리나라 국격(國格)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모든 스포츠 이벤트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INTERVIEW 박성인 선수단장

“비인기 종목 격려해 주세요”

조영철 기자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후회 없는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인(72)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장은 2월 2일 출범식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출전 의지를 다짐하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5개, 세계 10위권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1950년대 탁구 국가대표 출신인 박 단장은 1997년부터 빙상연맹을 이끌고 있으며,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도 한국선수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삼성스포츠단 단장직도 맡고 있다.

박 단장은 “그동안 한국의 동계올림픽 메달밭은 쇼트트랙뿐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 획득이 가능해졌다”며 “메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메달 종목의 다양화야말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전 이후 매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해왔으나 ‘한국 동계올림픽 메달은 왜 쇼트트랙에만 편중돼 있느냐’는 지적을 받으면서 두 차례나 유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경기시설뿐 아니라 경기력 측면에서도 뒷받침돼야 종합적인 유치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메달 종목 다양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이 처음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선 쇼트트랙 남자 1천5백미터 결승에서 김동성이 석연찮은 실격 판정을 받아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에게 금메달을 빼앗기는 사건이 빚어졌다.

당시 편파 판정 논란으로 파문이 일자 박 단장은 대회 막판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이의를 제기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박 단장은 “억울한 마음에 제소하는데 바빠 나머지 선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다”고 회고하며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부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일이 다가오면 선수들은 긴장하게 된다. 더구나 이번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 기대되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박 단장은 “선수들이 평소의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주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적을 거둘 걸로 본다”며 “비단 메달 유망종목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

연아야, 기분 좋게 점프해!

200점대 남발·언론 플레이 등 심리전 치열

2월 24일(한국시간) 쇼트프로그램을 치르는 '피겨 퀸' 김연아의 금메달 획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아사다 마오(일본), 조애니 로셰트(캐나다) 등이 200점대 점수를 받으면서 밴쿠버에서 펼쳐질 '여자 싱글 판도'가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해외 피겨 전문기자들은 대부분 김연아를 여자 싱글 '금메달 0순위'로 예상한다.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마치고 점수를 기다리던 김연아(20 · 고려대)는 전광판에 점수가 뜨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도 질끈 감았다. 점수는 207.71점.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마의 200 점'을 넘은 것이다.

그때껏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200점대는 선수에게도, 심판에게도 심리적 한계선이었다. 선수에게는 '저 벽을 넘기면 연기가 새 경지에 들어서는 순간'이요, 심판에게는 '차원이 다른 연기를 보이는 선수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인 점수. 김연아는 세계 최초로 이 점수를 깨뜨리면서 새 역사를 썼다.

AP

김연아와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는 지난해 12월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204.62점으로 우승을 차지해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한다.

AFP

조애니 로셰트는 1월 17일 캐나다 피겨선수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208.23점을 받았다.

이후 김연아는 지난해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그랑프리 1차 대회 '에릭 봉파르'에서 210.03점을 받아 자신의 기록을 또 한 번 깨뜨렸다. 김연아가 200점을 돌파한 뒤 '심리적 한계선'은 계속 무너졌다. 세계 곳곳에서 200점을 돌파하는 선수들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4월 아사다 마오(20·일본 주쿄대)는 일본에서 열린 '2009 ISU 세계 팀 트로피' 대회에서 201.87점을 받았고, 12월 일본에서 열린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204.62점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두 선수가 200점을 넘었다. 조애니 로셰트(캐나다)는 1월 17일(현지시간) '2010 캐나다 피겨선수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쇼트프로그램 64.15점과 프리프로그램 144.08점을 받아 208.23점을 받았다. 로셰트와 경쟁하듯 미국의 레이첼 플랫도 1월 23일(현지시간) '2010 전미 피겨선수권대회'에서 200.11점을 기록했다.

해외 언론의 반응은 양분됐다. 〈AP통신〉이나 캐나다 〈CBC〉, 미국 〈LA타임스〉 등은 "겨울올림픽 금메달 후보는 김연아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LA타임스〉의 기고가 필립 허시는 "피겨 전문기자 6명이 겨울올림픽 금메달을 예측했다. 아이스댄싱과 페어, 남자 싱글의 경우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여자 싱글은 6명 모두 '김연아'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아DB

안도 미키는 지난해 말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다.

로이터

레이첼 플랫은 1월 전미 피겨선수권대회에서 200.11점을 기록했다.

가 200점대를 받은 ISU 세계선수권대회(미국 LA)나 그랑프리 대회(프랑스 파리)와는 그 권위가 다른 대회다.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는 "자국 선수권대회에서는 국제대회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예술 부문에 대한 평가인 프로그램 구성요소(PCS) 점수가 국제대회보다 훨씬 후하다. 각 기술점수에 붙이는 심판 재량 가산점(GOE)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 선수들의 '기 살려주기' 차원에서 200점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사다 마오는 1월 전주에서 열린 ISU 4대륙대회에서 183.96점을 받았다. 전일본 선수권대회 때와 비슷한 연기를 펼쳤지만 ISU 공인대회에 나서자 점수가 20점 가까이 깎인 셈이다.

안도 미키(일본)를 가르치는 니콜라이 모로조프 코치는 최근 피겨스케이팅 전문 인터넷 사이트 <아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안도 미키가 김연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도 미키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를 이겼고, 프리스케이팅에서 근소한 차이로 김연아에게 졌다"며 안도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꿈이 아니라고 했다.

새 채점제 도입 이후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200점대를 돌파한 김연아. 그를 겨냥한 라이벌 선수들의 분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회를 코앞에 둔 김연아는 평소와 같은 생활환경을 유지하다가 올림픽 공식훈련 하루 전인 20일 밴쿠버에 입성한다.

이와는 다른 시각도 있다. "마오도, 로셰트도, 플랫도 200점대를 넘겼다. 모두 김연아와 경쟁 가능한 고지에 올라선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김연아 독주체제라기보다는 경쟁체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미국, 캐나다 언론은 자국 선수들의 선전에 한껏 들떠 있다.

해외 언론 "금메달은 김연아의 것" 극찬

물론 200점대 점수라고 다 같은 점수는 아니다. 눈여겨 봐야 할 건 경쟁자들의 200점대 점수가 나온 장소다. 아사다 마오가 200점을 받은 곳은 두 번 모두 일본이다. 플랫과 로셰트도 각자의 모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점대 점수를 받아들었다. 모두 자신의 '홈'에서 고득점을 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건 대회의 ISU 공인대회 여부. 플랫과 로셰트가 출전한 대회는 모두 올림픽 국가대표를 가리는 자국 선수권대회였다. 마오의 경우 한 번은 자국 선수권대회였고, 한 번은 국가 대항전 성격의 '팀 트로피' 대회였다. 김연아

지난 1월 '전미 피겨선수권대회'에서 2위로 입상해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나서는 일본계 미라이 나가수는 대회가 끝난 뒤 "레이첼과 내가 '그들'을 날려버리겠다(We're just going to blow them away)"고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뒤 총 쏘는 포즈를 해 보였다. 총 쏘는 포즈는 김연아가 '007 메들리' 피날레에 선보이는 동작. 사실상 김연아에게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피겨스케이팅계는 "이 역시 선수들의 '기 싸움'에 가깝다. '나도 이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본격적 '기 싸움'을 시작하는 건 올림픽 공식 첫 훈련에서다. 올림픽처럼 큰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긴장도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사라 휴즈 · 미국)이나 2006년 토리노 올림픽(시즈카 아라카와 · 일본) 때 의외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온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 훈련이다. 훈련장에 모인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기량을 곁눈질한다.

특히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김연아의 컨디션은 모든 이들의 관심거리.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김연아가 세계 최고기록(210.03점)을 세운 그랑프리 1차 대회 ‘에릭 봉파르’ 때 그는 첫 훈련에서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 다른 선수들의 기를 죽여버렸다. 이후 함께 훈련하던 아사다 마오는 점프에서 난조를 보이는 등 제 기량조차 발휘하지 못했지만 김연아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실전에서도 최고 기량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올림픽 심판진 역시 첫 훈련 날 빙상장을 찾아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한다. 여러모로 이날의 컨디션이 실전 성적을 좌우하는 셈이다.

빙상 3시간 · 체력 3시간 맹훈련

대회를 코앞에 둔 김연아는 최근 어떻게 훈련하고 있을까. 김연아의 일과는 평상시와 달라진 게 없다. 경기 당일까지 평소와 똑같은 생활환경을 유지할 예정이다. 오전 8시쯤 눈을 뜬 김연아는 어머니 박미희 씨가 해주는 아침밥을 먹고 훈련 장소인 크리켓클럽으로 향한다. 1시간 정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후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남짓 빙상 훈련을 한다. 이후 샐러드 등으로 점심을 때운 김연아는 두 번째 빙상 훈련에 들어간다. 빙상 훈련은 총 3시간.

최근 김연아는 실전처럼 음악에 맞춘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프로그램을 한 번씩 다 연기해본 후 미흡한 부분을 가다듬기도 하고, 체력 유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두 번 연이어 소화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만 반복하는 부분 훈련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훈련도 병행한다. 빙상 훈련이 끝나면 빙판 밖에서의 체력 훈련도 3시간 정도 이어진다. 저녁을 먹고 물리치료까지 마치면 8시가 다 된다.

김연아는 여자 싱글 공식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0일 밴쿠버에 입성한다. 숙소로는 올림픽 선수촌 대신 밴쿠버 시내의 한 호텔을 이용한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물리치료사, 코칭스태프 등이 김연아와 함께할 수 없어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연아의 어머니는 토론토에서부터 김연아와 함께 움직이고, 아버지 김현석 씨는 22일쯤 밴쿠버로 가 김연아를 응원할 계획이다. “남들은 금메달을 얘기하지만 나는 금메달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경기를 했으면 한다”는 게 아버지의 바람이다. 간호사인 언니는 직장 때문에 현지 응원은 할 수 없다고 한다. G

글 · 온누리(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김연아를 보호하라

“영원히 사랑하겠다” 극성팬에 골머리

‘여왕을 보호하라’. 김연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연아 경호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김연아가 훈련하고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 크리켓클럽 입구에는 한 캐나다 소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김연아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10대 소년의 사진이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크리켓클럽 입구의 접수원과 경비요원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혹시 이 소년이 나타나면 바로 보안요원이나 경찰을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혹시라도 빙상장에 나타나 김연아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려돼 취한 조치다.

문제의 이 10대 팬은 처음엔 오서 코치에게 “김연아를 만나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사진도 함께 부쳤다고 한다. 평소 김연아에게는 전 세계에서 응원과 격려의 편지가 날아드는 까닭에 오서 코치는 이 편지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오서 코치는 소년에게 “편지는 고맙지만 만나게 해줄 수는 없다”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소년은 같은 메일 주소에 보내는 사람 이름만 달리해 계속 오서 코치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서 코치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이 소년이 ‘김연아를 영원히 사랑한다. 만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했다”며 우려했다.

김연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대회인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연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일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게 오서 코치의 생각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수 보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력 유지를 위해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는 김연아는 시내 호텔에 머무는 터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 직원들이 같은 호텔에 머물면서 김연아를 보호할 예정이고, 훈련과 경기가 열리는 빙상장 주변에서는 캐나다 경찰들이 김연아의 안전을 책임진다.

연합

연합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연습에 땀을 흘리는 남자 쇼트트랙 대표선수들.

‘남자 셋 여자 하나’ 기대

‘대한민국의 힘’ 쇼트트랙 동계올림픽 금빛 전망

한국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쇼트트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래 대회마다 금맥을 캐온 쇼트트랙의 메달 전망을 짚어본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쇼트트랙은 이번에도 최강의 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측면도 있다. 토리노 대회 때 남녀 부문에서 나란히 3관왕을 차지했던 안현수와 진선유가 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며 쇼트트랙에 ‘에이스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그러나 선수들은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뭉쳐 있다.

남자부는 믿음직하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땄던 이호석(24·고양시청)과 새로운 에이스 성시백(23·용인시청), 이정수(21·단국대)가 든든하다.

쇼트트랙 스타 출신인 김기훈(43) 대표팀 감독은 “첫 경기인 1천5백미터에서 잘 풀린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후 1천미터와 5천미터 계주 등 4년 전 토리노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5백미터를 제외한 3개의 금메달을 기대한다.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는 1천5백미터 결승전은 한국의 설날인 2월 14일(한국시간) 열린다.

한국 선수끼리 남자 개인전 금메달 다툴 수도

성시백과 이호석의 ‘투톱’ 체제에 이정수까지 가세해 한국 선수끼리의 개인전 금메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성시백은 한국 쇼트트랙을 이끌 유망주로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창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나 2007년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5백미터와 1천미터, 1천5백미터, 3천미터 슈퍼파이널, 5천미터 계주까지 전 종목 금메달의 신화를 이뤄냈다.

이후 한국의 에이스로 올라선 성시백은 이번 동계올림픽 선발전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라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다. 성시백은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바깥돌기'가 특기다.

이호석은 4년 전 올림픽 때는 5천미터 계주 금메달, 1천미터와 1천5백미터 은메달로 안현수에 이은 '2인자'였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정수는 얼마 전 〈AP통신〉이 예상한 각 종목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1천미터와 1천5백미터, 5천미터 계주까지 3관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시즌 4차례의 월드컵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 1천미터와 1천5백미터에서 랭킹 1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홈팀인 캐나다의 세력이 강력하다. 개인별 기량도 뛰어난 데다 홈 텃세도 예상된다. 이번 시즌 캐나다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3차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10차례 이상 실격 판정을 받았다. 우리 선수들은 캐나다 선수들과의 경기 때 심판 판정이 한국 선수들에게 유독 엄격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최강의 자리를 절대 물려줄 수 없는 한국 남자팀이다.

여자부 '3000m 계주 5연패' 노려

쇼트트랙 여자부는 언제나 한국팀에 2개 이상의 금메달을 안겨줬다. 1994년 릴레함메르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땐 전이경이 2회 연속 2관왕의 금자탑을 쌓았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는 고기현이 2관왕에 오르며 여자 쇼트트랙에서만 금 2개, 은 2개를 따내는 등 한국선수단의 메달을 모두 여자들이 책임졌다. 그리고 지난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선 진선유가 3관왕에 오르며 금 3개, 은 1개를 캤다.

그러나 이번엔 여자부 메달 전망이 녹록지 않다. 조해리(24 · 고양시청), 박승희(18 · 광문고), 이은별(19 · 연수여고), 최정원(20 · 고려대), 김민정(25 · 전북도청) 등 5명의 여자 전사들은 중국의 왕멍, 조우양, 자오난난 등 중국의 '스리톱'에 비해 기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3천미터 계주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각오다. 선배들이 1994년부터 이어온 '계주 4연패'의 신화가 자신들의 대에서 끊기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지난 12월 부임한 최광복 여자부 코치의 혹독한 조련 속에 금메달에 대한 애틋한 바람이 요즘은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3일치를 소화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대표팀 맏언니 김민정은 "너무 힘들지만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했고, 막내 박승희도 "처음에는 코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체력이 올라오니 자신감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코치는 "지금은 노력한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캐나다에서 우리 선수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국 선수들이 긴장을 할 것이고, 실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G

글 · 권인하(스포츠조선 스포츠팀 기자)

안현수, 진선유 선수가 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며 쇼트트랙에 '에이스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져진 우리 대표팀에게 이번 올림픽은 '쇼트트랙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진 · 연합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메달 유망주들인 남녀 쇼트트랙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림픽 3연속 재패 김기훈, 이젠 감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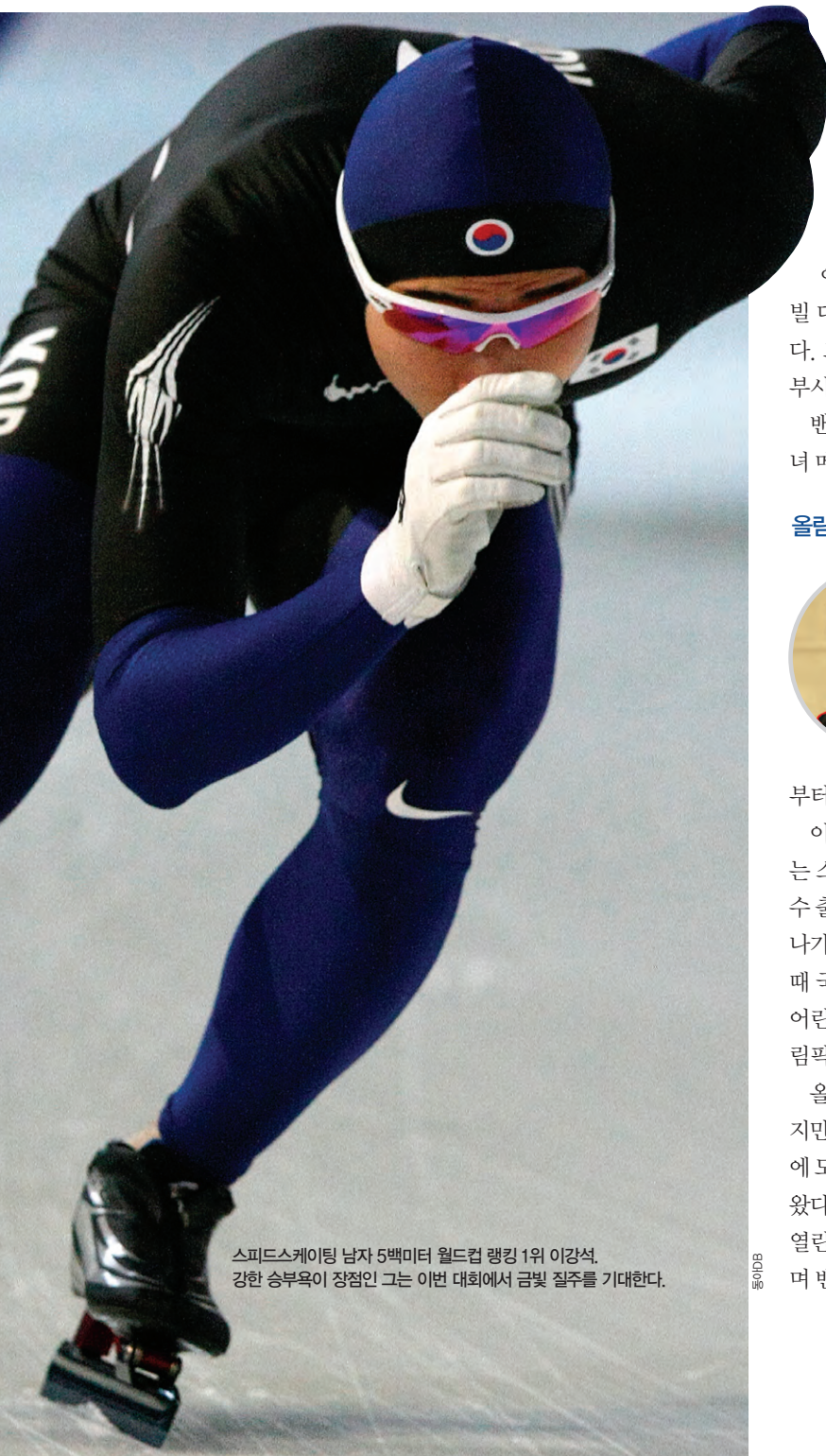
무엇이든 최초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 최초의 쇼트트랙 스타였던 김기훈(43) 대표팀 감독은 우리 국민에게 쇼트트랙이란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린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다.

김 감독은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 시범 종목이었던 쇼트트랙 1천5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땄다. 비록 시범종목이었지만 한국의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이어서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랐다. 동계 종목은 한국인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의 '금 질주'는 거듭 이어졌다.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 알베르빌 대회 1천미터에서 금메달을 따며 공식적으로 한국에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안겼고, 5천미터 계주에선 극적인 '날들이밀기'로 2관왕에 올랐다. 이어 펼쳐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전관왕에 오르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릴레함메르 대회에서도 1천미터에서 우승해 캘거리 대회 때부터의 '3연속 금메달' 신화를 썼다.

16년 만에 다시 지도자로서 올림픽에 나서는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도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 막판 최고조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선수들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지도자로서의 성공 신화를 자신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첫 金 향해 질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그 주인공으로 이규혁, 이강석, 이상화가 꼽힌다. 이들과 함께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이승훈도 기대주로 떠올랐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백미터 월드컵 랭킹 1위 이강석. 강한 승부욕이 장점인 그는 이번 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기대한다.

동아DB

한국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출전사는 오래됐다. 일장기를 달고 뛴 1936년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대회부터 시작한다. 김정연, 이성덕, 장우식 등 3명이 출전했다. 그 이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길고 긴 노(No)메달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회에서 북한의 한필화가 여자 3천미터 은메달을 획득한 뒤에야 한국은 28년이 지나서야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에서 남자 1천미터의 김윤만이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그 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에서 이강석(25·의정부시청)이 남자 5백미터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밴쿠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녀 메달 기대주들을 살펴보자.

올림픽 무대만 5번 | 이규혁

이규혁(32·서울시청)은 올 시즌 남자 5백미터 월드컵 랭킹 2위, 1천미터에서는 랭킹 3위다. 최근 〈AP통신〉이 전망한 한국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에도 꼽혔다. 이규혁에게 이번 올림픽이 5번째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빠짐없이 나갔다.

이규혁은 가족 이력부터 범상치 않다. 아버지 이익환(64) 씨는 스피드스케이팅, 어머니 이인숙(54) 씨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이다. 동생 이규현(29)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1998년 나가노 대회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 출전했다. 13살 때 국가대표로 뽑혔으니 이제 태극마크를 단 지도 어언 20년.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 세계대회를 휩쓸었지만 유독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다.

올림픽에서의 거듭된 실패로 은퇴 결심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이규혁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캘거리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월드컵 4, 5차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향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동아DB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 광경.

나이 탓에 체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체중을 줄여 지구력을 증가시켰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슬림한 몸매로 가꾼 덕에 폭발적인 스피드도 줄지 않았다. 매번 발목을 잡던 부담감도 떨쳐냈다. 이규혁은 "단거리는 실력 차가 적고 심리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기 예상도 할 수 있고 돌발 상황을 만나도 덜 당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샤니 데이비스(미국), 제러미 위더스푼(캐나다) 등 쟁쟁한 상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규혁은 "한순간에 결과가 좌우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순 없다. 오랜 경험이 있는 만큼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첫 100m 9초5 | 이강석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5백미터에서 이강석은 '깜짝 동메달'을 땄다. 당시 메달 후보는 이규혁이었기에 빙상계의 놀라움은 컸다. 이강석은 그때를 돌아보며 "첫 올림픽 출전이라 메달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멋모르고 경기에 나갔는데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이강석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백미터 월드컵 랭킹 1위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지만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어쩌지 못한다. 이강석은 "TV를 보다가도 '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올림픽 장면이 화면에 비치면 나도 모르게 움찔한다. 바로 TV를 꺼버린다"고 심적 부담을 털어놨다.

이번 올림픽은 그에게 두 번째 대회인데도 긴장감은 오히려 더하다. 하지만 이강석은 큰 경기에 강한 장점을 지녔다. 지난 시즌 부진한 편이었지만 2009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5백미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5월 맹장수술을 받은 전력을 생각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이강석의 강점은 초반 스피드. 첫 1백 미터를 9초5대에 끊는 이강석의 스피드는 단연 세계 최고다. 빙상 전문가들은 만약 1백미터 대회가 있다면 1위는 이강석의 차지라고 입을 모은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도 이강석의 장점이다. 이강석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자 하는 성격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의 상승세 | 이상화

남자에 이규혁, 이강석이 있다면 여자 부문에는 이상화(21·한국체대)가 있다. 이상화는 지난달 열린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선수로는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5백미터 세계기록 보유자인 예니 볼프(독일)를 누르고 차지한 우승이라 의미가 남달랐다.

이상화는 2006년 토리노 대회 때부터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5백미터 5위로 여자부 역대 최고성적을 거뒀다. 동메달과 0.17초 차이. 첫 올림픽이라 긴장을 많이 했다는 이상화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그 뒤 이상화는 "열심히 연습해 그저 기록만 줄이자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 올림픽에서는 상위권 선수들과 비슷한 기록을 올리고 싶다"고 기대했다.

대표팀에서 이상화의 기량은 독보적이다. 지난해 12월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5백미터에서 한국신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5차 대회 5백미터에서도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상화의 최고기록인 37초24는 볼프나 월드컵 랭킹 2위의 왕베이싱(중국)과 약 0.20초 차이다. 충분히 우승을 넘볼 만한 기록이다.

男 5000m 이승훈도 메달권 진입 가능성

남자 장거리 5천미터의 이승훈(22·한국체대)도 메달권 진입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는 북미와 유럽 선수들이 휩쓸고 있는 종목. 하지만 이승훈은 이번 올림픽에서 그 벽을 뚫을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4월까지 쇼트트랙 대표선수이던 이승훈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로 선발되자마자 한국기록을 세 차례나 갈아치웠다. 아시아에선 이미 적수가 없을 정도다.

현재 이승훈의 기록은 세계 5~8위 수준으로 금메달까지는 아니어도 메달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승훈은 "쇼트트랙에서 몸에 밴 코너워크가 큰 도움이 된다. 아시아 선수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온 장거리 종목 메달에 도전하겠다"며 투지를 드러냈다. G

글 · 김동욱(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스키점프 국가대표 김현기 선수가 멋지게 날고 있다. 김 선수를 비롯한 스키점프 대표팀은 지난해 영화 〈국가대표〉로 알려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로 훈련 및 경기 참가 비용을 댔다.

동아DB

무명의 설움을 떨쳐라

스키점프 · 봅슬레이 등 감동을 부르는 '국가대표'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름들이 있다. '비인기 종목'이란 이름으로 빛에 가려진 선수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묵묵하게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려온 밴쿠버의 '숨은 영웅'들을 모아봤다.

스키점프 최흥철 · 최용직 · 김현기

출전 쿼터 줄어 개인전만 출전

지난해 대한민국은 영화 〈국가대표〉에 열광했다. 실제 스키점프 국가대표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이름조차 생소한 종목의 선수들이 꿈을 위해 어떤 시련을 이겨내왔는지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조명했다. 덕분에 최흥철(29), 최용직(28), 김현기(27), 강칠구(26)는 오랜 무명의 시간을 끝내고 '하이원'이라는 안정된 소속팀을 찾게 됐다. 그리고 그 둥지는 밴쿠버로 향하는 이들의 어깨에 작은 날개를 달아줬다.

이들 넷이 처음 모인 건 1993년이다. 1997년 무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무주 주변 스키 유망주들 가운데 스키점프 멤버를 선발했는데 이들이 눈에 띈 것이다. 그때만 해도 스키점프가 어떤 종목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선수들은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둔 전라북도의 지원 아래 빠르게 기량을 쌓았고, 해외 전지훈련을 거치면서 유소년 신기록을 세우는 등 가능성을 보였다.

문제는 1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반짝 지원은 금세 끊겼고, 국내 스키점프 저변은 너무 좁았다. 선수들은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해가며 훈련하고 경기했다. 대표팀을 보좌하는 스태프는 김흥수(30) 코치 한 명뿐. 왁스 트레이너까지 따로 둔 외국 선수들은 첫 번째 점프

를 마친 후 심리 트레이너와 함께 명상하며 두 번째 점프를 준비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직접 스키에 왁싱을 하는 동시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알아서 해야 했다.

그러니 우리 스키점프 팀이 거둔 성과는 '기적'에 가깝다. 2003 타르비시오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단체전 금메달, 2003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단체전 은메달. 지난해에도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또 국제스키연맹(FIS)컵 대회에서 최흥철, 김현기가 번갈아 1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성적을 냈다.

영화 흥행 성공에 힘입어 소속팀이 생긴 이들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전지훈련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넘어서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림픽 출전 쿼터가 3장으로 제한되면서 강칠구가 엔트리에서 빠진 게 아쉽다. 4명이 나서는 단체전 출전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스키점프 관계자들은 "개인전에서는 20위 안에만 들어도 훌륭한 성적인데, 자칫 국민들 기대가 커서 실망할까 두렵다"고도 한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밴쿠버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는 것. 올림픽은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만의 것이 아니지 않은가.

봅슬레이 **강광배**

17년간 썰매 세 종목 모두 올림픽 출전

강광배(38)가 처음 설원의 매력에 빠진 건 대학 새내기 시절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하지만 밤낮으로 스키에만 매달려 살던 1995년, 슬로프를 내려오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곧바로 지체장애자 5급 판정이 떨어졌다.

더는 스키를 탈 수 없다는 선고에 좌절하던 그는 운명처럼 대학 게시판에서 루지 선수를 선발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일말의 주저도 없이 곧장 지원했고, 30명 중 2등으로 뽑혀 정식 선수가 됐다. 여름이면 바퀴를 단 썰매를 타고 아스팔트를 질주하길 수차례. 결국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루지 국가대표로 출전하면서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닥쳤다. '세대교체'를 이유로 대한루지연맹으로부터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고, 무릎을 또 다쳐 수술대에 올랐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4인승과 2인승 종목에 출전한다.

대학 지도교수 소개로 스켈레톤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동계올림픽의 인연은 그대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스켈레톤에서 희망을 찾은 그는 혼자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을 만들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에 가입하는 열정을 발휘했다. 그리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와 2006년 토리노 대회에 스켈레톤 선수로 출전하고야 말았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내 미개척 종목이었던 봅슬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기적적으로 일본을 따돌리고 밴쿠버행 티켓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처음 루지를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썰매 세 종목으로 모두 올림픽에 출전하는 업적을 이룬 셈이다. 비록 메달권을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강광배야말로 한국 동계스포츠의 '개척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바이애슬론 **문지희**

밴쿠버에서 경험 쌓고 소치에서 금메달 노려

문지희(22·전남체육회)는 한국 바이애슬론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선수다. 무주중학교 스키부에서 처음 바이애슬론과 인연을 맺은 뒤 2005년부터 5년째 태극마크를 달고 설원을 누비고 있다. 서양 선수들에 뒤지지 않는 신체조건을 갖춘 데다 승부욕도 강해 처음부터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재능을 꽃피운 건 무릎 부상에서 벗어난 2007년. 국제무대에 발을 내디딘 지 1년 여 만에 월드컵 37위까지 도약했다. 당연히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최고 기록이다.

문지희의 꿈은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따내는 것이다. 사실 당장은 어렵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지 않고, 경기운영 능력을 더 길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후반의 질주를 위해 상체 근력도 키워야 한다.

하지만 밴쿠버는 문지희가 성장하는 과정의 하나다. 4년 후 소치에서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른다. 2년 정도만 더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세계 대회 15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동아DB

동아DB

한국 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호준이 멋진 공중 곡예를 선보이고 있다(위). 이채원 선수는 척박한 현실을 뚫고 '스키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다(아래).

크로스컨트리 이채원

이름 석자가 역사… 동계체전 최다 금메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채원(29)의 이름 석자는 곧 '한국 크로스컨트리'와 동의어였다.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스키부에서 처음으로 크로스컨트리와 인연을 맺은 뒤 2학년이던 1996년 동계체전에 첫 출전해 여자부 프리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후 14년째 간판스타다. 국내에서는 누구도 넘보기 힘든 기록을 쌓아왔다. 이전까지 14차례의 동계체전에서 따낸 금메달만 어느덧 41개. 이달 열린 동계체전에서도 메달 행진을 이어가면서 알파인스키 허승욱이 갖고 있던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43개)을 넘어섰다.

물론 이채원도 세계 수준과는 아직 격차가 있다. 현재 FIS 랭킹은 2백60위. 사상 최고 성적도 2006~2007 시즌의 1백31위였다. 하지만 '스키의 마라톤'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종목에서 척박한 현실을 뚫고 일궈낸 성과라 의미가 있다.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점도 그렇다.

1백54센티미터의 키에 48킬로그램인 여린 몸매로 거구의 북유럽 선수들과 겨뤄온 이채원. 밴쿠버 설원에서 펼쳐질 그녀의 질주는 '올림픽 정신'의 상징이 될 듯하다.

스노보드 김호준

사상 첫 하프파이프 출전 '의지의 사나이'

김호준(20·한국체대)은 국내 스노보드 사상 처음으로 하프파이프에 출전한다. 출전만이 한국 '최초'는 아니다. 지난해 2월 2009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따낸 은메달은 역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거머쥔 메달이었다.

이제 약관의 나이지만 김호준의 선수 경력은 벌써 11년째다. 스키장비점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눈과 친해진 게 계기였고, 스노보드 전향 후 첫 전국 대회이던 1999년 2월 전국스키선수권대회에서는 하프파이프와 대회전에서 준우승하고 보드크로스에서 동메달을 따내 재능을 인정받았다.

중학교 2학년 때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1년 넘게 재활에 매달리는 시련도 겪었다. 겨울에만 스키장을 개장하는 국내 사정 때문에 엄청난 전지훈련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수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오뚝이처럼 일어나 각종 주니어와 시니어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온 '의지의 사나이'다. 밴쿠버에서도 험난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하지만 기죽지 않고 제 기량을 보여주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스키 서정화

밴쿠버 6위 입상 목표… 한국 스키 새 역사 쓸 것

서정화(20·미국 남캘리포니아대)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지난해 9월 미국의 명문 남캘리포니아대학(USC)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의미로 '알파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학업뿐만 아니라 운동에서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30위권에 진입해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게 그 증거다. 또 수험생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성적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목표도 6, 7위 정도로 높게 잡았다. 대표팀 관계자들은 "날씨만 도와준다면 그 이상의 성적도 나올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서정화에게 이번 올림픽은 새 역사를 위한 출발지점일 뿐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스키 종목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까지 바라보고 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30살을 전후해 전성기를 맞는데, 서정화는 이제 갓 스무 살인 데다 매일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G

글 · 배영은(스포츠동아 스포츠1부 기자)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피겨 첫 경기 기대하세요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지는 '스포츠 빅 이벤트'는 TV 방송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인 김연아의 가상 이야기를 빌려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를 디지털 방송으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저 김연아, 드디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많은 분들이 밴쿠버에 직접 가서 응원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시는데,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디지털 방송이에요. 태극전사들의 경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2012년 12월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화질이 3~5배 이상 깨끗해요. 음질 또한 CD 수준, 화면 또한 영화 장면같이 16:9 비율입니다. 날씨, 증권,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방송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부터 아날로그 방송과 함께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요. 2012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디지털 방송은 어떻게 보느냐고요? 디지털TV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TV는 지상파 디지털 컨버터와 수신 안테나만 달면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래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국 11개국은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26개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끝내게 된다네요.

디지털 TV로 보면 더욱 생생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TV를 보급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보급형 디지털TV를 선정해 올 5월부터 일반 시청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답니다. 또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전국의 아날로그TV 방송 직접 수신 가구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구요.

앞으로는 3DTV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올 10월 세계 최초로 풀HD급 지상파 3DTV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3DTV 시연을 한다고 해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도 3DTV로 시험중계할 계획이랍니다.

제 설명이 도움 되셨나요?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디지털 방송 중계를 통해 많은 태극전사들이 여러분과 좀 더 가깝고 친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디지털 방송 dtv.go.kr DTV Korea dtvkorea.org

일자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2월 14일	05:00 남자 5000m 결승	10:00 남자 1500m 예선 11:49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15일	06:00 여자 3000m 결승		
16일	08:30 남자 500m 결승		
17일	06:00 여자 500m 결승		
18일	09:00 남자 1000m 결승	10:27 남자 1000m 예선 11:35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	
19일	06:00 여자 1000m 결승		
21일	09:15 남자 1500m 결승	13:05 남자 1000m 결승	
22일	08:00 여자 1500m 결승		
24일	04:00 남자 10000m 결승		09:30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25일		10:47 남자 500m 예선 11:26 여자 3000m 계주 결승	
26일			10:00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27일		12:16 남자 500m 결승 12:52 남자 5000m 계주 결승	

AP

루지 · 스켈레톤 · 컬링…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색 동계스포츠

페어스케이팅, 아이스댄싱, 바이애슬론, 노르딕 복합,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컬링….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이색 종목들이다. 언뜻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기본 경기 규칙과 채점 방법을 알고 보면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루지는 혼자 썰매에 드러누운 채 다리부터 내려오는 경기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세계루지월드컵대회.

AFP

은반 위 무도회 | 페어스케이팅 · 아이스댄싱

'피겨 퀸' 김연아의 활약 덕분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피겨스케이팅의 규칙을 알고 있지만, 같은 스케이팅 종목이면서도 페어스케이팅과 아이스댄싱은 여전히 생소하다.

먼저 페어스케이팅은 여자와 남자 선수가 짝을 이뤄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점프, 스파이럴(한쪽 다리를 들고 활주하는 기술), 스핀(회전) 등 기술과 연기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남녀 싱글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개별 기술과 연기의 완성도 못지않게 두 선수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두 선수가 아무리 어려운 점프를 성공시켰다 해도 호흡이 잘 맞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페어의 또 다른 매력은 남자의 힘과 여자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동작들에 있다. 파트너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리프트',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잡고 던져서 점프를 돕는 '스로 점프', 남자 선수가 축이 돼 버틴 상태에서 여자 선수가 거의 누운 자세로 회전하는 '데스 스파이럴' 등은 싱글 경기보다 더 짜릿한 재미를 선사한다.

아이스댄싱은 점프 동작 없이 펼쳐지는 '얼음판 위의 볼룸댄스'라고 생각하면 쉽다. 페어처럼 남녀가 짝을 이뤄 경기를 펼치지만,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려서는 안 되고, 두 선수가 양팔 길이 이상 떨어져서도 안 된다. 선수들은 점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소 무겁더라도 더 화려한 의상을 입고 경기에 나서며, 유일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간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설원의 팔방미인 | 바이애슬론 · 노르딕 복합

북유럽 구릉지대에서 이동수단으로 시작된 크로스컨트리가 노르딕 스키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면, 바이애슬론과 노르딕 복합은 여기에 다른 요소가 혼합된 경기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에 사격이 결합된 형태다. 선수들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달리다 지정된 위치마다 멈춰 사격을 해야 한다. 사격은 자칫 늘어지기 쉬운 바이애슬론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져다주는 '백미'다.

선수들은 50미터 앞에 놓인 1백15밀리미터(서서 쏘기), 45밀리미터(엎드려 쏘기)의 과녁을 정확히 맞히지 못할 경우 따로 설

1 아이스댄싱은 '얼음판 위의 볼룸댄스'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갈라쇼의 아이스댄싱 연기.
2 지난해 2월 2009 평창세계바이애슬론선수권에서 독일의 시모네 선수가 언덕을 오르고 있다.
3 지난해 3월 2009 강릉세계여자컬링선수권 출전 선수들이 신중하게 스톤을 밀고 있다.

치된 벌칙 코스를 돌아야 한다. 결승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키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크로스컨트리를 몇 킬로미터씩 치른 선수들이 거칠어진 호흡을 멈추고 사격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격에서의 한 번 실수가 승부를 완전히 가르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접전과 이변이 많이 생기는 종목이 바이애슬론이다.

노르딕 복합은 노르딕 스키의 다른 갈래인 스키점프가 크로스컨트리와 결합된 종목이다. 진정한 노르딕 스키의 최강자를 가리는 종목이라 할 만하다. 노르딕 복합에 나서는 선수들은 먼저 스키점프 경기를 치른 뒤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핸디캡을 안고 크로스컨트리 레이스를 펼쳐 순위를 가린다.

스키점프에서 얻은 점수가 높을수록 크로스컨트리를 먼저 출발할 수 있으며, 개인경기 기준으로 스키점프에서 1점 차이가 날 때마다 4초씩 늦게 출발한다. 노르딕 복합은 바이애슬론만큼 짜릿한 역전의 쾌감을 주는 경기는 아니다. 대신 빠르게 땅을 달리고 멀리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 힘과 지구력, 균형감각을 모두 갖춘 '설원의 팔방미인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계속도를 느끼다 |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봅슬레이와 루지, 스켈레톤은 서로 '같은 듯 다른' 썰매 종목이다. 자메이카 썰매선수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쿨 러닝〉과 최근 국내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진 봅슬레이는 2~4명의 선수가 커다란 썰매를 타고 1.5킬로미터 가까운 코스를 질주해 속도를 겨루는 경기다.

가장 앞에 타는 선수가 핸들을 조종하는 '파일럿' 역할을 맡으며 뒤에 타는 선수가 '브레이크맨'이 된다. 4인승의 경우 나머지 2명은 '푸시맨'으로 50미터가량 썰매를 끌면서 최대한 가속도를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스켈레톤과 루지는 모두 혼자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경기다. 스켈레톤은 엎드린 채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종목이다. 머리부터 내려오는 자세 때문에 보는 사람이 큰 긴장감을 느끼는 종목이다. 반대로 루지는 다리부터 내려오는데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봅슬레이나 스켈레톤보다 더 위험하다. 썰매 세 종목 중 유일하게 도움닫기를 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빙판 위의 체스 | 컬링

컬링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치열한 두뇌싸움을 즐길 수 있는 경기다. 4명으로 구성된 2팀이 빙판 위에 그려진 표적판에 스톤을 던져 더 가깝게 붙이기 위해 경쟁하는데, 엔드마다 8개씩 던져 상대보다 가까이 놓인 스톤의 수로 점수를 가린다.

일단 스톤을 던지고 나면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어 얼음판에 빗질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경기 시작 전 빙판에 뿌린 얼음입자(페블)를 닦아내 스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스톤의 활주 거리와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진다.

'빙판의 체스'라는 별명답게 컬링에서는 상황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술의 묘미가 남다르다. 비록 경기 템포는 느린 편이지만 모든 플레이가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만큼 '왜 지금 저곳에 스톤을 보내려 할까'를 생각하면서 경기 사이사이 여백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먼저 공격을 하는 팀은 보통 불리한 처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로 가는 중앙 경로에 자기편 스톤을 놓아 길목을 차단하는 등 수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후공팀은 차단된 길목 바깥쪽에 자기팀 스톤을 배치시키곤 한다. 나중에 하우스에 들어간 스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포석을 까는 것이다. 후공에 나선 엔드에서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는 팀은 때로 모든 스톤을 밖으로 쳐내 아예 점수를 내지 않는 극단적인 작전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득점 없이 다음 엔드에서도 같은 순서로 공격을 시작하게 되므로 다시 한 번 대량 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 G

글 · 고동욱(연합뉴스 스포츠부 기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때론 선생님처럼 때론 친구처럼"

밴쿠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코치, 트레이너,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의 든든한 지원군이 그들이다. 막판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여념이 없는 그들을 만났다.

조영철 기자

태릉선수촌 식당 검식사 신승철 씨.

신승철 검식사 · 조성숙 영양사

선수들 영양 · 입맛이 내 손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날선 긴장감을 떨쳐낼 수 없는 고된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세 차례의 시간이 있다. 바로 식사시간이다.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마치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태릉선수촌 식당을 책임지는 검식사와 영양사 등 33명의 식당 직원들도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을 위해 한 끼에 13, 14가지 반찬을 만든다. 메뉴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을 넘나들고 선수촌 생활을 오래한 선수들이 질리지 않도록 매년 새로운 메뉴도 개발한다.

27년간 선수촌 식당의 입맛을 책임져온 검식사 신승철(49) 씨는 "다른 종목에 비해 새벽 연습이 많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선수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올 때마다 참 대견해 보인다"고 했다. 빙상종목 선수들이 새벽 일찍부터 식당에 와서는 "밥 먹을 때가 가장 기다려진다"며 애교 섞인 농담을 건네는가 하면, 먹고 나서는 늘 예의 바르게 "잘 먹었습니다"라며 인사도 잘한다는 것. 신 씨는 "음식 투정 안 하고 예의 바르게 잘 먹는 선수들일수록 성적도 좋더라"며 밴쿠버 출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양사 조성숙(50) 씨는 선수들에게 "밴쿠버에 가서도 영양 보충에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는 "경기를 앞두고 잠이 안 올 때는 '키위 스무디'를, 경기 도중 급격히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를 꼭 챙겨 먹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김은국 의사 · 강현용 물리치료사

태극전사 건강은 내가 지킨다

'태릉선수촌 주치의'라 불리는 의사 김은국(39) 씨는 선수들을 치료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밴쿠버 올림픽의 팽팽한 긴장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래도 동계종목은 레슬링, 유도 등 다른 종목에 비해 몸싸움이 적은 편이라 부상 위험이 덜하다는 게

다행스럽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자칫하면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요즘은 올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어 선수들이 아주 조심하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는 없다"며 "대신 부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물리치료사 강현용 씨.

스케이트화를 장시간 착용하는 빙상종목 선수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은 물혹이다. 스케이트화가 발목을 조여 발목 살이 쓸리면서 물혹을 만들어낸다. 물혹을 오래 방치하면 굳은살이 되고 훈련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물혹이 심한 선수들은 수술을 하기도 한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무릎을 굽히고 목을 숙이는 경직된 출발자세 때문에 근육통이 심하다. 이런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치료가 동원된다. 물리치료사 강현용(37) 씨는 "물리치료는 마사지, 찜질, 수중치료에 이르기까지 방법이 서른 가지가 넘고, 치료 기간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번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선수들과 함께한다. 이번 올림픽 경기는 밴쿠버에서 벌어지는 빙상종목과 휘슬러에서 열리는 스키 등 기타 종목으로 크게 나뉘는데, 강 씨는 휘슬러에서 부상 위험 선수들을 위해 24시간 대기할 예정이다.

이광현 지도위원

종목별 기초체력 길잡이

태릉선수촌 '월계관'에선 많은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월계관은 전문적인 체력강화 장비 2백여 개를 갖춘 국내 최대 체력단련장으로 3명의 체력지도위원들이 각 종목별 선수들에게 맞춤 체력훈련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기초체력을 길러준다. 보통 2시간 정도 계속되는 선수들의 체력훈련을 지도하는 이광현 지도위원은 "쇼트트랙의 경우 자전거,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슬라이드 보드 등 종목별 맞춤 훈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코치나 감독은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체력훈련 노하우에 대해선 모를 수 있다"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고 종목에 따라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입사해 지금까지 수많은 선수들을 지도해온 이 씨는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메달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기호 선수는 올림픽에 벌써 다섯 번째 출전하는데 이는 재능도 뛰어날 뿐 아니라 평소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올림픽 출전 종목이라 해도 메달 획득 실적에 따라 태릉선수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진다. 이른바 '비인기 종목'인 데다 동계종목 훈련시설도 열악한 편인 태릉선수촌에선 동계종목 중 주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선수들이 입촌해 훈련받고 나머지 종목들은 주로 비시즌인 여름에 체력훈련을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여름에는 해외 대회 참여로 바쁜 스키점프팀도 훈련장을 찾아 기초체력을 보강했다"며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동계종목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 크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신혜숙 피겨스케이팅 코치

"널 믿는다" 친엄마처럼 격려하기도

레이디 경향

신혜숙 코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대모'로 불리는 신혜숙 코치(54). 그는 무려 26년간 빙판 위에서 김연아, 김나영 등 피겨 선수들을 가르쳐왔다. 신 코치는 오랫동안 많은 선수들을 길러낸 노하우로 "훈련할 땐 무서운 선생님이지만 밖에서는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꼽았다. 나이 어린 선수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널 믿는다",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일"이라며 친엄마같이 격려해주는 것도 그의 몫이다.

지난 1월부터 피겨 유망주로 곽민정 선수를 가르치고 있는 신 코치는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 대회에서 드러났듯이 민정이는 기술은 좋지만 표현력이 다소 부족한 게 아쉽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정이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처럼 큰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제 겨우 두 번째입니다. 물론 이번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4년 뒤에 있을 소치 동계올림픽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예요." G

글 · 김민지 기자

연합

김해진 양은 1월 10일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5종 점프를 모두 성공시키며 우승했다.

무섭게 큰다 될성부른 떡잎들

차세대 빙상 유망주 4인

이번 동계올림픽의 열기에 가려진 빙상 유망주들이 있다. 밴쿠버 대회 이후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며 오늘도 빙판 위를 쉼 없이 달리고 있는 차세대 빙상 스타들을 만났다.

피겨스케이팅 김해진
우승보다 점수 오른 게 더 기쁜 '제2의 김연아'

경기 과천 관문초등학교 6학년 김해진(13) 양은 '제2의 김연아'로 통한다. 그는 지난 1월 10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인 곽민정(16·군포수리고)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시니어 데뷔 무대인 이 대회에서 김해진은 트리플 플립, 트리플 루프,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루프, 트리플 살코 등 트리플 5종 점프를 모두 성공시키며 기량을 마음껏 과시했다. 초등학생이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트리플 5종 점프를 모두 뛴 것도 2003년 김연아(당시 13세) 이후 처음. 아쉽게도 김해진은 나이가 어려 이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받지 못했지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충분히 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김해진이 피겨스케이팅과 인연을 맺은 것은 7살 때.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던 친구의 연습을 구경하러 과천 아이스링크에 놀러 갔다가 얼음판을 지치는 피겨스케이팅의 매력에 빠져 그때부터 운동 삼아 피겨를 시작했다. 수없이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좌절이나 포기를 몰랐다. 몸 여기저기 상처가 늘고 울음을 터뜨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김해진의 어머니는 "기술 하나를 익히려면 3천 번을 넘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해진이도 처음 트리플 토루프 기술을 익힐 때는 남보다 더 힘겨운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다음 기술을 하나씩 익힐 때는 훨씬 수월하게 단계를 밟아나갔다"며 딸의 재능을 인정했다.

올해 과천중학교에 진학하는 김해진은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좋지만 지난해 12월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때보다 점수가 오른 게 더 기쁘다"고 했다. 또한 "중학생이 돼서도 계속 기량을 향상시켜 다음 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스피드스케이팅 김태윤
"빙상은 나의 운명"… 미래 밝은 차세대 스타

지난 1월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남녀빙상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김태윤(16·의정부중 3학년) 군은 스피드스케이팅의 기대주로 꼽힌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그는 남중부 5백미터, 1천미터 경기에서 각각 38초72와 1분17초86의 기록으로 우승한 데 이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김지성, 박대한과 팀을 이뤄 팀추월경기에서도 4분31초25로 금메달을 따냈다.

김태윤은 지난해 3월에 열린 제44회 고(故) 빙상인 추모 전국남녀빙상경기대회에서도 남중부 5백미터 경기에서 38초89의 대회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는 5백미터, 1천미터, 1천5백미터, 3천미터, 5천미터, 팀추월경기 등 6가지 종목이 있는데 김태윤의 주 종목은 5백미터와 1천5백미터다.

빙상연맹 배철기 이사는 "태윤이는 지금도 중학생 중에서 실력이 가장 월등하지만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선수"라며 "2014년,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빙상계의 중심축으로 활약할 만한 재목"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영철 기자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한 김태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로 탔는데, 타면 탈수록 빙상이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세계 최고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가장 존경한다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강석, 이규혁보다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 김태윤은 매일 서너 시간씩 빙판 위를 달린다. 1초를 1백 개로 쪼갠 찰나의 기록을 앞당기려는 그의 고군분투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 그때마다 그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승기를 잡는다.

쇼트트랙 **노진규 · 최지현**

국내 최강… 세계주니어선수권도 제패

지난 1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0 세계 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남녀 종합우승을 휩쓸어 화제가 됐다. 두 주인공은 경기고 2학년 노진규(18), 청주여중 3학년 최지현(16) 선수다. 종합우승은 1천5백미터, 5백미터, 1천미터 경기와 슈퍼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1천5백미터 경기를 모두 치른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돌아간다.

이 대회에서 노진규는 종합우승과 함께 1천5백미터와 1천미터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최지현도 5백미터, 1천미터, 1천5백미터, 3천미터 계주에서 모두 금을 따내며 5관왕에 올랐다. 최지현은 지난해 3월 열린 전국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도 전 종목 우승을 휩쓴 바 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한 노선영 선수의 동생 노진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스케이트 타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게 누나는 존경하는 선수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중학교 1학년 때 스케이트를 타다 허벅지를 다친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1년 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누나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줬다"며 고마워했다.

한동안 부상 후유증으로 스피드를 내기 힘들었던 그는 하루 6, 7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전국동계체전에서 1천5백미터 우승을 차지했다. 어렵게 따낸 금메달의 영광은 그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준 것은 물론 세계 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 3관왕 등극의 원동력이 됐다.

최지현이 스케이트를 타게 된 동기도 노진규와 비슷하다. 최지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오빠의 영향으로 쇼트트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쇼트트랙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의 미래가 됐다.

"우연히 출전한 제21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선수로 뛰게 됐어요. 그때부터 매일 오전에 2, 3시간, 오후에 5시간씩 훈련을 해왔어요.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몸 풀기로 5킬로미터는 기본으로 뛰고요. 오빠는 그만뒀는데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스케이팅이야말로 제가 가장 잘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 그는 빙상부가 있는 경기 성남 분당의 서현고에 진학한다. 덕분에 지금보다 운동에 전념하기 좋은 여건이 주어질 전망. 고등학생이 되면 체력과 스피드를 키워 차기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최지현. 그의 금메달 싹쓸이 행진이 다음 올림픽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G

글 · 김지영 기자

1월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남녀빙상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거머쥔 김태윤 군.

동아DB

노진규 군은 1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0 세계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부문 종합우승을 포함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 여자 부문에서 종합우승한 최지현 양(오른쪽)은 5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는 국가대표다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 투혼… 26인의 출사표

밴쿠버 동계올림픽 열기가 한창 달아오른 이때, 한편에서는 3월에 열릴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 26명이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한국 대표팀에 거는 기대와 메달 기대주들을 소개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딴 한상민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유력한 메달 후보다.

2월 3일 오후 경기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특설 컬링장. 수영장을 빙판으로 바꾼 이곳에서 휠체어에 앉은 선수들이 차례로 익스텐더 큐(막대 모양 도구)로 둥근 스톤을 하우스(표적판) 안에 밀어 넣거나, 상대 선수의 스톤이 하우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무게가 20킬로그램에 육박해 빙판 위에서 자칫하면 제멋대로 가버리는 스톤을 원하는 자리로 밀려면 강한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남녀 혼식 4인 1조로 구성하는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의 홍일점 강미숙(42) 선수는 “빙질이 최상은 아니지만 전용 연습장에서 종일 훈련하니까 실력이 부쩍부쩍 늘고 있다”면서 “금메달이 목표”라고 결의를 다졌다. 강 선수를 비롯해 5명의 국가대표 휠체어컬링팀은 모두 원주연세드림팀 소속이다. 이 팀은 2008년 스위스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실력파로, 이번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이천 외에도 강원도 정선 하이원스키장, 용평 크로스컨트리장, 강릉빙상경기장 등에서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26명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이다. 오는 3월 12부터 21일까지 열흘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열리는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출전 사상 최초로 5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에 모두 참가한다.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대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장애인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은 선수 3명, 임원진 4명을 파견한 데 비해 이번 대회에는 선수 26명, 임원진 24명 등 5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알파인 좌식스키 한상민 선수 강력한 메달 후보 떠올라

이번 장애인동계올림픽에는 45개국에서 1천3백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64개 메달을 놓고 겨룬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동메달 1개 이상을 따 종합 22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1월 26일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결단식에서 김우성 선수단장(67)은 “이번에 파견하는 선수단은 규모와 실력 면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진국 수준”이라며 “현지 전지훈련, 과학적 훈련기법의 도입, 정부와 기업의 지

연합

대한장애인체육회

1월 26일 열린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결단식'에서 출전 선수들과 김우성 선수단장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왼쪽). 강미숙, 김명진 선수 등 5명이 휠체어컬링 국가대표로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원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피겨 퀸' 김연아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기량과 투지는 그에 못지않다.

유력한 메달 후보로 거론되는 알파인 좌식스키의 한상민(30 · 하이원) 선수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 장애인동계올림픽 출전 최초로 메달을 안겨준 간판스타.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 좌식스키 부문 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껏 물이 오른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 선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다른 대회보다 규모가 커서 기대감도 더 크다. 주위에서 기대하는 만큼 금메달을 따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1급 장애인이 된 한 선수는 대한장애인체육협회에서 제공한 1천3백만원 상당의 맞춤형 좌식스키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전 종목 26명 출전… "한국 장애인 스포츠 발전 앞당길 것"

대표팀의 '얼짱'으로 소문난 정승환(24) 선수는 아이스슬레지하키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이스슬레지하키는 하반신 장애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썰매를 타고 겨루는 아이스하키 경기로, 이번에 1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정 선수는 지난해 10월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예선전에서 맹활약을 펼쳐 8개국 팀에게 주는 이 부문 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당시의 활약에 힘입어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선정 '이달의 선수'로 뽑혔다.

유전성 약시를 갖고 태어나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임학수(22) 선수도 메달 유망주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출전하는 임 선수는 청주맹학교 시절 육상선수로 뛰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생긴 장애인 스키팀 하이원리조트에 합류했다. 지난해 IPC 주최 스웨덴 동계월드컵대회에 출전해 크로스컨트리 시각장애인 부문 3위에 올랐고, 사격과 스키를 겸하는 바이애슬론 출전권까지 따냈다.

>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희망'이자 '치료요법'이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 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는 생활체육이 되기 바란다."**

대표팀에는 휠체어컬링의 강미숙, 좌식스키에 출전하는 서보라미(24) 등 2명의 여자선수가 있다. 1월 말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스키대회에 출전한 뒤 귀국한 서보라미 선수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장비와 경기를 보는 것도 좋은 기회였다"면서 "동료 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6년 전 계단에서 낙상해 지체1급 판정을 받은 서 선수는 "사고 후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1년 전부터 선수생활을 하면서 앞길 찾아가는 딸을 대견하게 여기신다"고 했다.

이들 외에도 밴쿠버 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를 입고 살아온 이들이다.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부회장이자 치과의사들의 의료봉사 모임 '스마일복지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우성 선수단장은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희망'이자 '치료요법'이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 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는 생활체육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실업팀을 많이 만들고, 장애인 스키학교와 같은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팀은 강원도청 아이스슬레지하키팀, 원주연세드림 휠체어컬링팀,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스키팀과 크로스컨트리팀에 불과하다. 장애인 스포츠 전용 경기장이나 연습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최신 장비와 의료지원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G

글 · 최은숙 기자

4표 차… 3표 차…

이대로 물러날 평창이 아니다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과거 두 번의 유치전에서 축적한 경험과 온 국민의 유치 열망을 무기로 이번에는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다. 정부도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은 과연 평창에서 열릴 수 있을까. 강원도의 청정도시 평창이 지구촌 최대의 겨울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 다시금 도전장을 내밀었다. 평창은 이미 두 번의 올림픽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때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캐나다 밴쿠버에 53 대 56, 3표 차로 패했다. 이어 2007년 과테말라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때는 1차 투표에서 러시아 소치에 36 대 34로 앞섰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결선투표에서 4표 차로 뒤지는 역전패를 당했다.

결국 동계올림픽 유치의 푸른 꿈은 물거품이 되는 듯했으나 이대로 물러날 대한민국이 아니다. 평창은 2전3기의 뚝심으로 다시 일어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지난해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도 방대한 겨울스포츠 인프라를 가진 유럽과 미주지역 대도시들과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 특히 차기 IOC 위원장 물망에 오른 토마스 바흐 부위원장을 포함해 3명의 IOC 위원을 앞세운 독일 뮌헨은 강력한 경쟁자다. 하지만 평창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은 기필코 따내겠다"는 필승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들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4퍼센트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창이 두 번째 도전에 나섰던 2007년의 찬성률 84퍼센트보다 7퍼센트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평창군에서는 종이학을 접고 돌탑을 쌓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 성사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밴쿠버에 '코리아하우스' 설치하고 대대적 홍보

사상 첫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지난해 9월 발족한 유치위원회는 과거 두 차례의 유치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평창의 이미지를 빙상의 메카로 새롭게 각인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밴쿠버에 설치한 코리아하우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메인프레스센터 등지에서 대규모 기자회견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꿈꾸는 청정도시 평창의 설원이 아름다운 정취를 뽐내고 있다. 동아DB

을 열어 해외 주요 언론에도 평창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밴쿠버에 모여들 전 세계 1백12명의 IOC 위원을 상대로 스포츠외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연말 사면된 이건희 IOC 위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정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30억원의 지원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유치위원회는 정·관·재계 인사 17명, IOC 등 국제체육단체 인사 13명, 경기단체장 및 전·현직 선수 20명, 체육단체 임원 9명 등 76명으로 구성됐다. 이건희 IOC 위원과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김영수 전 문화부 장관 등 10명은 고문을 맡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사무국도 개설됐다. 기획처, 홍보협력처, 국제처, 시설준비처 등 4개 파트로 구성된 사무국은 정부와 강원도, 대한체육회(KOC), 한진그룹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유치 성공전략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부처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치위원회는 모든 경기장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상의 편의, 두 번의 유치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전 국민의 단합된 유치 열망 등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결의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 의제… 총력 지원할 것"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장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 확충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과 경기장 건설 사업비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브랜드와 품격을 높이는 국가적 의제인 만큼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수많은 국제기구 대표단과 외신기자단이 모이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평창' 홍보의 기회로 삼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는 평창을 포함해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 불가리아 소피아, 중국 하얼빈, 미국 덴버,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의 경합이 예상된다. IOC는 올해 6월 이들 중 공식 후보도시 3곳을 선정하고 내년 2, 3월쯤 후보도시들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오랫동안 동계올림픽 개최를 꿈꿔온 평창의 운명은 내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총회는 IOC 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동아DB

강원 평창군 횡계초등학교 학생들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종이학 2천18마리를 접었다(위). 아래는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주민들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쌓은 돌탑.

를 선정한다.

그동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진두지휘해온 김진선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강원도지사)은 "동계올림픽을 열면 약 1조원의 투자액이 들어가겠지만 수천억원의 흑자가 난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지역발전 효과까지 감안하면 국익 차원에서도 동계올림픽은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세계 각국이 이미 동계올림픽 개최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을 치른 후 대회조직위원회는 6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남겼다. 또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대회 이후 4천억원의 흑자를 거둔 것은 물론 인구 2만여 명의 두메산골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1998년 대회 개최지인 일본 나가노도 마찬가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고속도로망과 고속 정보통신 시설을 정비해 국제 컨벤션시티로 거듭난 나가노는 우리 돈으로 약 56조3천억원이 넘는 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우리나라는 20조4천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23만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안겨줄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 이제 평창이 이뤄낼 차례다. G

글 · 김지영 기자

모처럼 겨울다운 겨울 추위를 즐겨라!

추위는 가족, 연인, 친구와 추억을 만들어준다. TV 앞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즐기며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 썰매장, 스키장을 소개한다.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겨울스포츠 공간이 됐다.

동아DB 조영철 기자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 더 좋다.

도심에서 즐기는 겨울스포츠 | 스케이트

얼음 위에서 리듬에 맞춰 움직이거나 스피드를 즐기는 짜릿함이 매력인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덕분에 스케이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즐길 수 있는 겨울스포츠로는 스케이트만한 게 없는 데다 대부분의 스케이트장이 도심 가까이 있고 비용도 저렴해 요즘 스케이트장은 추억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서울 도심에 어린이들의 노래 소리가 울려퍼졌다. 광화문광장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다. 올겨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으로 변신한 광화문광장은 2월 2일 기준으로 18만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을 만큼 시민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광화문광장 스케이트장은 대형, 중형, 소형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소형 링크는 얼음썰매 전용으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이용하면 좋다.

2월 15일까지 문을 열며, 주중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11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스케이트와 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1회 1시간 1천원이다. 장갑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장갑을 가져와야 한다. 장갑을 현장에서 구입할 때는 5백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주말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 1천원에 스케이트와 안전모가 제공된다.

북서울 꿈의숲 스케이트장과 썰매장도 스케이트와 썰매 대여료 1천원에 시간당 이용료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대림유수지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와 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어린이는 3천5백원, 중고생은 4천원, 성인은 4천5백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2월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장한다.

경기도에는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엔아이센터 아이스링크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국내 전용훈련장으로 유명하다. 입장료는 초등학생 2천원, 청소년 2천5백원, 성인 3천원이며, 스케이트 대여료는 3천원이다. 헬멧은 무료로 빌려주지만 장갑은 가져와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운영하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목요일은 휴관이다.

경기 수원 AK플라자 7층 옥상 하늘공원에도 스케이트장이 있다.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에 이용할 수 있고, 금~일요일에는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 연장 운영된다. 스케이트 및 안전장비 대여료는 1시간 기준으로 각각 1천원과 5백원이며 스케이트 강습료는 2천원, 강습 시간

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시청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한 곳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청사 주차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마련했다. 월~금요일 오전에 만 6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케이트교실도 연다. 스케이트와 안전모 대여료를 포함해 1천원, 강습료는 1만원이다. 2월 21일까지 휴일 없이 매일 운영된다. 성남종합운동장 안에 마련된 눈썰매장도 2월 21일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1천원이다.

경기 오산시는 시청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했다. 2월 21일까지 운영하며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 교실도 열린다.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분까지다. 요금은 시간당 1천원이며,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남 천안에도 도심 한복판에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생겨 시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스케이트장은 바닥에 전기 시설을 설치해 날씨에 관계없이 겨우내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용 눈썰매장도 따로 마련돼 있다. 스케이트장 입장료는 1천원이고 대여료도 1천원이다. 눈썰매장은 어른 5천원, 어린이·청소년 3천원이다.

겨울에 만나는 동심의 세계 | 썰매

안전요원의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눈썰매가 쏜살같이 아래로 미끄러진다. 신나는 눈썰매에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어른들도 신이 난다. 어릴 적 언덕에서 비료포대나 널빤지를 타던 추억을 떠올리며 동심에 빠져든다. 눈썰매뿐 아니라 저수지나 논에서 즐기던 얼음썰매도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강 뚝섬과 여의도 수영장을 사계절 테마파크로 바꾼 수피아 뚝섬에는 튜브 눈썰매장이 문을 열었다. 성인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 외에 썰매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월 21일까지 운영된다. 이용료는 어린이 3천원, 청소년 4천원, 어른 5천원이다.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눈썰매장에는 서울에서 최대 규모인 1백20미터 어린이용 슬로프와 80미터 유아용 슬로프가 있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눈썰매장 입장료는 8천원, 눈썰매 외에 빙어잡이, 민속놀이, 얼음조각 체험 등 부대행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은 1만2천원과 1만3천원이다. 2월 21일까지 문을 연다.

경기 과천 서울랜드 눈썰매장에서 성인코스와 2개의 유아코스가 있으며, 플라스틱 썰매와 튜브 썰매를 골라 탈 수 있다.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랜드 입장권이나 빅5이용권을 구입하면 이용료가 3천원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경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안산사계절썰매장은 썰매를 타고 내려온 뒤 다시 출발선으로 올라갈 때 68미터의 대형 무빙워크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용료는 어린이 4천원, 청소년 5천원, 어른 7천원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며, 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2월 할인을 즐겨라 | 스키&스노보드

탁 트인 설원을 자유롭게 내달리는 쾌감을 만끽하려면 스키와 스노보드가 좋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려면 필요한 장비가

썰매는 스케이트나 스키를 타지 못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아한다.

동아DB

스키와 스노보드는 경사면에서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사고 위험도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준비운동이 필수. 특히 날씨가 추우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다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많지만 요즘은 빈손으로 스키장에 가도 모든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스키는 넘어질 때의 압박이나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무릎이 손상되기 쉽다. 무릎 부상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스키판과 부츠를 고정하는 바인딩을 점검해야 한다. 체중이나 본인의 스키 실력에 비해 바인딩이 너무 강하면 넘어졌을 때 스키판에서 신발이 분리되지 않아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체력을 유지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스키를 타다 넘어질 때는 손에서 폴을 놓아야 한다. 폴을 쥔 채로 넘어지면 폴의 끈이 손가락에 휘말려 엄지손가락 인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 팔은 앞으로 뻗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모아 옆으로 넘어져야 스키가 교차돼 무릎이 뒤틀리고 인대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스노보드는 체중을 받쳐주는 폴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방향을 잡으며 타기 때문에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먼저 짚게 돼 손목인대 부상을 부르기 쉽다. 스노보드를 탈 때에는 반드시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넘어지는 때는 손은 가슴으로 모으고 서서히 주저앉는 게 좋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지만 스키어와 보드족들에겐 2월이 천국이다. 스키장들이 앞다퉈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는 요일별 할인으로 고객들을 유혹한다. 월요일에는 초보자 슬로프를 무료 개방(인터넷 사전예약 5백명)하고 화요일은 신한카드 소지자에게 50퍼센트 할인 혜택을 준다. 수요일에는 1970~1990년생 여성 고객에게 주간권 3만2천원, 반종일 및 올나이트권 3만7천원에 판매한다. 목요일은 회원 동반 고객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용평리조트는 주중 피크아일랜드 입장권을 구매하면 리프트 오전권 한 장을 무료로 주고, 정선의 하이원리조트는 신한카드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리프트권을 덤으로 준다. 지산 포레스트스키장은 다른 스키장의 시즌권을 가져와도 리프트권을 25퍼센트 할인해준다.

양지 파인리조트는 BC카드와 제휴해 리프트 주간권은 25퍼센트, 반일권은 35퍼센트 할인한다. 한적한 월~화요일은 최고 50퍼센트까지 할인해준다.

밤새 스키를 타는 야간 스키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강원 평창의 휘닉스파크 백야 버스 패키지는 3만9천원에 왕복버스, 리프트 백야권, 장비 렌털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도 밤 12시 30분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운영하는 백야권과 저녁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올나이트권을 30퍼센트 할인 판매한다. 올빼미 스키족들을 위해 사당, 삼성, 잠실, 목동, 여의도 등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엘리시안 강촌리조트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패키지가 3만3천원이다. 왕초보를 위해 주중 야간에 스키 4팀, 보드 3팀에게 선착순 무료 강습도 해준다. 포천 베어스타운은 매주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에 새벽 4시까지 슬로프를 오픈하고, 수도권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과 심야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현대 성우리조트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철야 스키'를 운영한다. 철야 스키를 즐긴 뒤 새벽 4시 40분에 출발하는 잠실, 대치동, 양재동, 사당동행 버스를 이용하면 출근 시간 전에 서울에 닿을 수 있다. 리프트권과 스키장까지 왕복하는 버스비에 장비 대여와 사우나(또는 수영장) 50퍼센트, 식당가 10퍼센트 할인이 통합된 원앤프리패키지의 가격은 5만원이다.

지산 포레스트리조트에는 어른, 어린이 구분 없이 1만5천원이면 오후권 또는 야간권의 종료시간 직전에 입장해 1시간 반 정도 즐길 수 있는 '해피 아워' 서비스가 있다. 한솔 오크밸리 리조트는 새벽 3시까지 문을 연다. 심야 스키 고객에겐 장비 대여료가 반값이다. 새벽 3시까지 수도권으로 향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1만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도심 스케이트장 & 썰매장

광화문 스케이트장 서울 중구 02-3210-1267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서울 송파구 02-410-1681
북서울 꿈의숲 스케이트장·썰매장 서울 강북구 02-2289-4001~5
어린이회관 눈썰매장 서울 광진구 02-2204-6094~5, 444-6377
수피아 뚝섬 눈썰매장 서울 광진구 02-452-5955
월드컵공원 얼음썰매장 서울 마포구 02-300-5539
대림유수지 스케이트장 서울 영등포구 02-2670-3137
서울랜드 눈썰매장 경기 과천시 02-509-6000
유엔아이센터 아이스링크 경기 화성시 031-267-8726~8
안산사계절썰매장 경기 안산시 031-492-3265~7
AK플라자 수원점 하늘공원 스케이트장 031-240-0575~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경기 성남시 031-729-3021~5
오산시청 스케이트장 경기 오산시 031-373-2851
천안 공설 스케이트장 · 눈썰매장 충남 천안시 041-561-7727
대전 꿈돌이랜드 스케이트장 · 눈썰매장 042-862-4000
영양 실외 빙상장 경북 영양군 054-683-2005
울진 엑스포공원 야외 빙상장 경북 울진054-780-2005

“신문산업 활로 개척에 중점 둘 것”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출범식서 밝혀

2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미디어산업 발전과 신문산업 활성화가 재단의 임무다.

지난 2월 1일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신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3개 기관을 통폐합한 단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특히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언론 및 정·관계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언론산업은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중심이자 신성장동력이며,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언론진흥재단은 언론 진흥과 선진화를 지원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신문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하는 데 모든 업무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산업 중흥 원년’ 선포… 5대 추진 목표 세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를 ‘신문산업 중흥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5대 목표로 △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뉴스 콘텐츠 품질향상지원 △읽기문화 진흥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창조적 진흥역량 강화 등을 세웠다.

앞으로 미디어산업 진흥기구로 나아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목표들에 따라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뉴스 콘텐츠 유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 업무에서 뉴스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높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뉴스 콘텐츠 유료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 ‘뉴스코리아’의 언론사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코리아는 현재 50개 언론사가 참여해 기사,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서비스다.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전개한다. 뉴스 콘텐츠의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 이 포럼은 디지털 뉴스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뉴스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터넷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원소스멀티유즈형 기획취재, 맞춤형 기획취재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언론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프로그램과 수습기자 기본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갖춘 ‘멀티 플레이어’ 기자로 양성해낼 계획이다.

지역 곳곳에 있는 독자들에게까지 신문이 배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배달 시스템도 구축한다. 배달 취약지역인 읍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민영센터, 소형 민영센터 등을 추가 개설해 전국적인 공동배달망 선진화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

또한 정부광고 대행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광고대행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시행할 방침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세계 최초 '종합 해양박물관' 착공

부산 동삼동… 2012년 여수 박람회 때 개관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9일 부산 동삼동에서 각계 인사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해양박물관 기공식을 가졌다. 왼쪽 사진은 2012년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박물관 조감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를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 휘하의 막강한 조선 수군 등 선대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갈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 동삼동 혁신도시에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9일 김형오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와 지역주민 1천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해양박물관 기공식을 가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문화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우리의 해양문화·연구·교육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 라는 기치를 내건 국립해양박물관은 4만5천4백44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건축 연면적 2만5천8백3제곱미터(4층) 규모로 건립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유치한 1천1백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국토해양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은 박물관이 완공되면 매년 70만~8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해양박물관은 런던국립해사박물관 같은 해사박물관, 워싱턴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오션홀 같은 해양자연사박물관, 대만 국립해양생물박물관 같은 해양아쿠아리움 등 분야별로 유형이 구분된다.

이에 비해 국립해양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이들 유형을 모두 통합한 종합박물관으로 건립돼 해양문화, 선박,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생물 등 종합해양 문화서비스를 한자리에서 관람객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박물관 1층에는 수장고, 해양도서관, 대강당, 연구·사무공간 등이, 2층에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3층에는 해양문화, 역사, 인물, 생물, 항해선박, 체험 등 상설전시관이, 4층에는 해양과학, 산업, 영토 등 상설전시관과 함께 4D영상관, 전망대 등이 각각 배치된다.

해양자연사박물관·해양아쿠아리움 등 '원스톱' 제공

국토해양부는 2012년 5월 12일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과 함께 이 박물관을 개관해 해양문화와 해양관광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3천1백66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천9백2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박물관에 전시 소장할 해양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개관일인 2012년 5월까지 1백23억원을 투입해 해양유물 수집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명노헌 사무관은 "해양유물 수집은 박물관의 품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물 기증 등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자체 문화예술·해양 관련 부서, 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국토해양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등에서 관심 있는 국민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노후대책 '내 연금'과 상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 전문 사이트 확대 개편

퇴직 후 내가 받을 연금은 얼마나 될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 재무설계부터 건강, 취미생활, 대인관계 등 노후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해주는 '내 연금'이 해답을 준다.

육아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지 7년 된 40대 주부 조은수 씨. 동네 친구들과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자신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회사에 근무하던 10년 동안은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퇴직 후엔 연금에 대해 까맣게 잊고 지내온 터. 이제 와서 어디서 어떻게 연금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하던 조 씨는 '내 연금' 사이트를 발견했다.

'내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기존의 노후설계 전문 사이트인 '행복나래'를 확대 개편해 2009년 12월 16일 선보인 사이트다. 조 씨는 애초 자신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겠다는 간단한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해보는 사이에 한 시간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어 남편의 예상 퇴직연금과 현재 납부 중인 개인연금 등을 갖고 부부의 노후 재무상황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또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가 목표로 하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어떻게 연금을 운용해야 할지 전략도 세워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는지, 현재 가계의 재무 상태는 얼마나 건전한지 등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조언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의 노후설계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재무설계, 생활설계, 노후설계 상담(위)은 물론 내 연금 내역 조회(아래)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지급액부터 자가진단 서비스까지 풍성

"저처럼 한창 연금을 납입하고 노후를 설계해나가야 할 40대뿐 아니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70대 부모님 세대에게도 이용을 권하고 싶은 사이트"라는 것이 조 씨의 이야기다. '내 연금' 사이트에서는 단지 연금 운용 등의 재무설계에 그치지 않고 건강, 일, 여가, 주거,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균형 잡힌 노후설계 서비스(CSA,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트 이용자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명, 스트레스, 생체나이, 갱년기 장애,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건강 상태와 대인관계, 여가활동 특성을 진단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관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픈한 지 한 달만인 1월 중순까지 총 20만명이 방문했으며, 하루 평균 7천명이 방문하는 등 이용자수가 계속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용자가 더 심층적인 노후설계를 원할 경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전국 91개 지사의 노후설계 전문컨설턴트와 대면상담을 통해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5세 이상 성인남녀 중 79.3퍼센트가 노후의 생활비 부족을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준비됐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해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 노후설계서비스부 류화열 차장은 "기존 금융기관의 재무설계 서비스는 일부 고소득층 위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중산층 및 저소득층 국민들의 노후설계를 돕기 위해 이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증식을 위한 재테크보다는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이므로 모든 연령층의 다양한 국민들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csa.nps.or.kr

거짓 '미소금융'을 조심하세요!

진짜 '미소금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미소금융'을 사칭해 유사 영업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일러스트 · 이승현

'미소금융 서민대출 안내. 신용대출 가능금액 1천만원. 대출 필요서류 안내전화 xxx-xxxx'.

지난해 12월 말 홍모 씨는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홍 씨가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미소금융입니다"라면서 친절하게 응대했다. 수화기 너머로 분주한 듯 전화 응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백만원이 급히 필요했던 홍 씨는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를 선입금하라"는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불러준 계좌에 별 의심 없이 40만원을 입금해줬다. 입금한 지 얼마 안 돼 해당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자 홍 씨는 그제서야 '가짜 미소금융' 사기에 걸린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홍 씨의 경우와 같은 피해 사례를 알리면서 '미소금융'을 사칭한 중개업자나 대부업체가 벌이는 유사 영업행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아 새로 내놓은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게 저금리(연 2~4.5퍼센트)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 미소금융 1호점이 문을 열고, 12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본격 출범한 이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민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를 이용해 10여 개 민간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다. '미소금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이 그런 예다.

미소캐피탈·미소론 등 비슷한 이름으로 서민 현혹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은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선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비슷한 명칭의 금융상품이나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특허청에 '미소금융' 상표 및 이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해 빠르면 올봄에 상표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은 "상표출원 등록 전에도 상표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미소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펼치고,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미소금융' 키워드를 광고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에는 '미소금융', '서민소액금융'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단속을 요리조리 피해 미소금융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를 1백 퍼센트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이 제시한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미소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첫째, 미소금융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둘째, 미소금융은 어떤 명목이라도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심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셋째,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상담은 미소금융 전국 지점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심이 들 때는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G

글 · 최은숙 기자

미소금융 Tel **02-1600-3500 www.smilemicrobank.co.kr**

남의 집 제사엔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데…

우리 집 차례상, 그래서 이렇구나

설날에 치르는 가장 큰 가족행사는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차례다. 차례 지내는 풍경과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은 지역마다 각양각색. 내 고장 차례상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까닭은?

동아DB

차례는 선조들이 이어온 음식문화와 지혜를 전수하는 소중한 전통교육이다.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실시한 설 차례상차림 교육.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가 되면 가족끼리 모여 세배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 설날 아침에 조상에게 올리는 세배는 정조차례(正朝茶禮)라고 한다. 또한 설 차례는 떡국을 올린다 하여 '떡국차례'라고도 일컫는다. 차례는 본래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약식 제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례(茶禮)'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원래 의미는 '차를 올리는 예'로,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매월 보름에 찻잔을 올리는 예에서 비롯됐다. 이 사당에 올리던 차례가 명절 제사로 남게 된 것이다.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례 음식은 지역은 물론 집안에 따라서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리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차례상 음식이 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것일까. 그 이유를 찾자면 먼저 우리나라의 씨족사회적 특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씨족사회로 지역의 근간이 이뤄져왔다. 같은 혈족이다 보니 체질도 비슷하다. 그러한 체질은 같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형성됐을 터. 또 하나, 성씨를 일컫는 '씨(氏)'는 바꿔 말하면 종자다. 종자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다르듯, 사람도 성씨에 따라 체질이 달라 몸에 맞는 음식이 다르다. 그 집안이 모여 사는 지역의 특산물이 그 집안 성씨의 체질에 맞는다는 얘기다.

이는 흔히 회자되는 '신토불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뿌리내리며 살아온 선조들은 자연스레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게 됐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차례 음식이 달라지게 됐다. 차례상은 각 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 제사는 '가가례(家家禮)'라 해서 각 집의 풍습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지만 큰 틀에서 지역별 특색을 띠는 제물 위주로 소개해본다.

경기도 경기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양을 포함한 중심지로, 통북어를 구이적으로 꼭 올렸다. 북어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며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또 녹두를 갈아 배추를 고명으로 넣고 만드는 녹두전을 부침전으로 올리기도 한다. 생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올린다. 예부터 생선 가운데 으뜸인 굴비를 올렸으나 요즘은 참조기나 가자미를 올리기도 한다.

경상도 경북지역, 특히 대구 쪽은 적으로 참상어살을 구워서 올린다. 대구 사투리 '돔배기'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특히 영천이 돔배기 특산지로 유명하다. 경남지역은 바다를 옆에 끼고 있어서 어물을 제사상에 많이 올린다. 조기뿐 아니라 민어, 가자미, 방어, 도미 등 여러 종류의 생선을 올리고 조개 등의 어패류를 올리는 지역도 있다. 생선포도 북어포만 올리지 않고 대구포, 가오리, 피문어 등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다. 안동에서 유명한 안동식혜는 그 지역의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제물이다. 삭히지 않은 엿기름과 고춧가루로 만든 안동식혜는 소화불량의 명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충청도 삼도가 인접한 충청도는 다양한 제물을 올리기로 유명하다. 경북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건어물인 대구포, 상어포, 오징어, 가오리포, 피문어 등을 올리고 호남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말린 홍어, 병어, 가자미, 낙지, 서대묵 등을 올린다. 바다가 인접하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는 배추전, 무적 등 전과 부침류를 많이 올린다고 한다.

전라도 전라도는 제사상에 홍어를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잔치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 홍어이다 보니 제사상에도 반드시 오르는 제물 가운데 하나다.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음식문화도 발달한 지역이어서 제사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오른다. 병어나 낙지, 그리고 남도 쪽에서 많이 나는 꼬막 같은 어패류도 단골로 오르는 제물이다.

강원도 대부분이 산간지방인 강원지역은 나물과 감자,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 특히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은 차례상에 반드시 메밀전을 올리며, 감자전이나 무와 배추로 만든 적을 올리기도 한다. 버섯류도 부침이나 전의 단골 재료. 특히 송이 같은 귀한 버섯은 소적으로 구워내 제사 음식으로 올린다. 어물이 많이 나는 동해와 강릉지역의 차례상에는 명태포와 생선전이 빠지지 않는다.

제주도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 도서지역이라 해도 못 구할 농수산물이 없다. 하지만 옛날에는 제주도 같은 섬에서는 농산물이 육지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산물이 많으니 제사 때도 그런 음식 위주로 상을 차렸다.

특히 옥돔처럼 제주도에서만 잡히는 생선이나 전복 등을 차례상에 올린다. 근래에는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다양한 과일들이 상에 올라온다. 귤은 물론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까지 올린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차례상도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변해갈 듯하다.

명절 때면 귀가 따갑게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梨柿) 등의 사자성어가 넘실댄다. 왜 그런 말들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조율이시'는 말 그대로 棗(대추), 栗(밤), 梨(배), 柿(감) 순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엄밀하게 따지면 '조율이시'가 아니라 '조율시이'가 옳다는 설도 있다. 즉 대추는 씨가 하나라 임금을 의미해 맨 왼쪽 상석에 올린다는 말이 있고, 통씨라서 순수한 혈통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밤은 밤송이 하나에 보통 세 톨이 들어 있어 3정승을 의미해 두 번째에 놓이고, 감은 씨가 여섯 개여서 6조 판서를 의미해 세 번째에 놓이게 됐다. 또한 배는 씨가 여덟 개라서 8도 관찰사를 의미하니 네 번째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설법 속 '장수 기원' 담은 조상의 지혜

물론 이런 얘기가 분명히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홍동백서는 붉은 제물은 동쪽, 하얀 제물은 서쪽에 놓는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청사과도 재배되니 이 또한 현재 차례상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좌포우해(左脯右醢·포는 왼쪽, 젓갈류는 오른쪽)나 어동육서(魚東肉西·생선은 동쪽, 육류는 서쪽) 등의 진설법을 나타내는 한자성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선조들이 후손에게 음식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좌포우해에서 보듯 왼쪽의 말린 포보다 오른쪽에 있는 젓갈류가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이고, 서쪽에 놓는 육류보다 동쪽(오른쪽)의 생선이 더 좋으니 자주 먹으라는 뜻이다. 또한 차례상에 놓인 순서를 보면 밥과 국 밑으로 탕(찌개류), 불에 구운 적, 채소류, 과일 등으로 차려지는데, 이는 사람이 식사를 할 때도 손에서 가까운 음식부터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선조들의 '밥상 지혜'를 보여준다.

이렇듯 차례는 단순히 상을 차리고 절만 하기 위해 지내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음식문화와 지혜가 담긴 음식 섭생법을 알기 위한 소중한 전통교육인 것이다. 요즘 세태를 보면 차례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선친이 좋아했다는 이유로 빵과 과자를 올리기도 하지만, 선조들이 가르쳐온 건강한 식문화가 잊혀져선 안 될 것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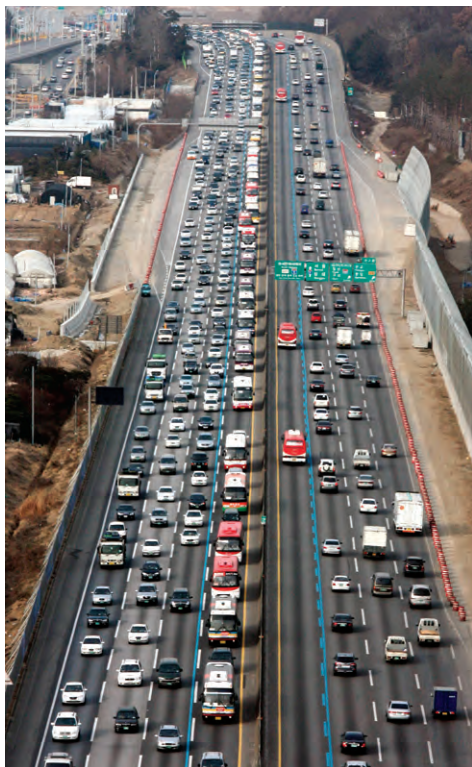
글 · 조창윤(가례원 대표)

경기상

영남상

호남상

짧은 연휴 긴 귀성길 “막혀도 느긋하게”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영업소 진입을 조절하고 공사 중인 국도를 임시 개통하며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등 설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혼잡상황, 주요 우회로, 최적 출발시기 등 교통정보는 공중파 방송,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동아DB

정부는 설 연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정보를 서비스한다.

올해 설 귀성길과 귀경길은 모두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귀성길은 설 전날인 2월 12일 오전, 귀경길은 설날인 14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 연휴 교통수요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의 예상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늘어난 2천5백46만명으로, 연휴 기간이 짧아 교통혼잡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길은 서울~대전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45분,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 7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경길은 대전~서울 4시간 50분, 부산~서울 9시간, 광주~서울 6시간 50분, 목포~서서울 7시간 20분, 강릉~서울 4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귀성객의 77.3퍼센트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버스 이용 17.4퍼센트, 철도 이용 4.4퍼센트 순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대중교통 최대치 투입…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우선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 버스, 연안 여객선, 항공기의 수송 능력을 최대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평상시에 비해 열차는 4백47량, 고속버스와 여객선 운행은 4백95회와 1백70회 늘어난다. 또 시외버스도 노선별로 운행횟수를 늘리고 3만2천34대의 전세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고속도로는 노선별로 서행 길이와 정체구간 비율 등 교통혼잡 상황에 따라 영업소 진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영업소 진입 조절은 지난해 추석 때 지·정체 길이를 90킬로미터나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 2월 12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후 24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IC까지 상·하행선에서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진입을 허용하는 전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도는 공사 중인 15개소 67킬로미터를 임시 개통하고, 15개 구간 83킬로미터를 준공 개통한다.

이와 같은 교통정보는 공중파 방송,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정부는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119구급대 1백34개소 및 구난 견인차량업체 3백61곳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 견인차량 1천2백66대를 배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체 구간에는 1천5백76칸의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1백11개 정비코너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편 귀경 편의를 위해 귀경 교통편과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 열차를 설날과 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택시부제도 2월 12일 4시부터 2월 17일 4시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설 연휴 교통정보는 여기서…

종합교통정보 1333, www.mltm.go.kr
전국 대중교통정보 www.tago.go.kr
인터넷 실시간 교통정보 www.its.go.kr
고속도로 교통정보 1588-2504, www.ex.co.kr
철도 교통정보 1544-7788, www.korail.com
경부선 1544-5551, www.kobus.co.kr
호남선 1588-6900, www.easyticket.co.kr
대한항공 www.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
여객선정보 island.haewoon.co.kr
기상정보 841-0011
기상청 131(해당지역번호+131), www.kma.go.kr
응급환자 수송 119
병원진료 안내 1339

2월 12일까지 농식품 물가 매일 점검

정부가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은 쇠고기, 쌀, 사과 등 18개 품목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공급물량도 크게 늘린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주부 김미연 씨는 장 보러 갈 일이 걱정이다. 가계 수입은 그대로인데 이맘때만 되면 고기와 과일 값이 치솟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민생경제는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해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을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성수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8가지가 특별 점검품목이다. 또한 삼겹살과 돼지갈비 가격,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찔방이용료 등 6가지는 개인서비스 부문의 관리대상으로 정해졌다.

통계청은 대책기간 동안 이들 24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성수품의 가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18개 농축수산물 특별 점검품목의 공급물량을 2월 1일부터 크게 늘렸다. 특히 최근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의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2~2.5배 늘렸다. 농·어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장도 1월 25일 전국 2천4백20곳에 개설됐다. 2월 13일까지 운영하는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장에서는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퍼센트 저렴하게 판매한다.

동아DB

설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이 경기 과천 경마공원에 마련한 한우 직거래 행사장.

성수품 세관검사 최소화 등 공급물량 대폭 확대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통관 절차 간소화와 화물차 통행제한 완화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세관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2월 16일까지 성수품에 대해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를 활용해 세관검사를 최소화한다. 또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은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12일까지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통관, 제조, 유통 등 단계별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 저울류 특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월 1일에는 1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22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설 물가와 민생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이승한 사무관은 "2월 1일까지 특별 점검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5퍼센트 이상 크게 상승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들이 물가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까지 물가안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귀성길에 신종플루는 데려가지 마세요

지난해 11월 초를 정점으로 신종인플루엔자A가 주춤해졌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신종플루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해마다 한바탕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특히 이번 설 명절 연휴는 단 3일로 예년보다 짧아 교통체증 등의 혼잡이 예상된다. 귀향·귀성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고속버스 휴게소 등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여 지난해 기승을 부리던 신종플루가 다시 고개를 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는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자 신종플루 합동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16개), 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1백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3백24개) 등으로 비상진료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가동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13개)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253개)는 연휴 동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종플루 예방수칙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한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의 개인행동요령,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 등을 가르쳐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는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예방접종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귀성길에 오르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게 안전하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약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등을 위한 보건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지자체 행정인력 및 시설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보건소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중교통 차량 및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응급의료체계 가동… 전 보건소 연휴 기간 진료키로

설 연휴를 맞이해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곳에 개인위생수칙을 게시하고 발열 체크 및 위생용품 등을 구비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종플루 감염자의 다수를 차지했던 학생들을 챙기는 데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현재 전체 학생의 82.3퍼센트인 6백15만여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만 8세 미만 학생의 2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귀성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긴장을 풀지 말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학기를 전후해 학생들이 대규모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학교별로 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초기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올 4월엔 신종플루 대응 우수 사례 평가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올 7월 중 전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응급의료정보센터 Tel **1339 www.1339.or.kr**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Tel **1577-1000**
예방접종 도우미 nip.cdc.go.kr

"법은 사회적 약속, 가까운 친구"

3기 어린이법제관 700명 모집… 온라인으로만 접수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 주역이다. 어린이들이 정부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라도록 돕는 일은 적극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제처 어린이법제관과 청와대 어린이기자단은 미래의 국민 참여를 위한 씨앗이다.

동아DB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법제관 제도. 법제처 토론회(사진)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얘들아, 법이란 그렇게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란다."

법제처는 어린이 관련 법령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어린이법제관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으로 모집 범위가 확대돼 2월 28일까지 일반 어린이법제관 약 6백50명, 사회적 약자계층 자녀 50명 등 총 7백여 명을 모집해 올 한 해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어린이법제관이 되려면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들의 지난 한 해 주요 활동과 법령개선 의견, 활동 소감문 등을 담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우리는 어린이법제관, 대한민국 법을 함께 만들어요〉를 1월 29일 발간했다. 식품, 교통, 학교사고, 놀이시설, 의약품, 공산품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도 함께 담겨 있는 이 책자는 올해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는 데 발맞춰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2월 초부터 전국 5천8백 개 초등학교에 배부됐다.

전국 단위 확대 모집… 사회적 약자계층 자녀도 50명 선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며, 분기별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이 전국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별 토론마당(연 2, 3회)을 개최하거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법 관련 기관 탐방과 캠프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종전과 같이 좋은 책 보내기(1년 4권), 청와대 초청행사, 한글날 행사 같은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고,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해 고민해보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자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2기 '청와대 어린이기자단'을 모집 중이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6천명을 선발하는 청와대 어린이기자단 모집은 2월 19일 마감된다. 2008년 11월 8일 출범한 청와대 어린이기자단은 올 1년 동안 청와대 어린이신문 〈푸른누리〉 제작에 필요한 현장탐방, 인터뷰 동행취재 등 다양한 취재와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G

글 · 문상훈 객원기자

어린이 법제처 moleg.go.kr/child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kidnews.president.go.kr

‘국민병’ 관절염을 막아라

걸레질 · 세수 등 쪼그려 앉기 금물

“아이고! 팔, 다리, 어깨야….”
관절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00년대 들어 관절염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제치고 우리나라 45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 됐다. 60대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매년 1퍼센트 이상 유병률이 상승하는 추세. 만성질환마다 ‘국민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진정한 으뜸은 바로 관절염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남녀를 통틀어 60대는 10명 중 3명(28.9퍼센트)이, 70대 이상은 4명(37.6퍼센트)이 관절염을 호소한다. 관절염은 특히 여성노인에게 심하다. 10명 중 2명을 넘지 못하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은 60대의 41.8퍼센트, 70대 이상의 48.5퍼센트가 관절염을 호소한다. 절반이 관절염 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관절염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도 국내총생산(GDP)의 0.11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6천2백49억원으로 만성질환 중 독보적 1위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온몸에 있는 2백6개의 뼈, 그리고 뼈 사이에서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1백여 개 이상의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관절염은 질환의 세부종류만 1백20여 가지가 넘는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퇴행성관절염으로, 관절 안에서 뼈와 뼈 사이 완충기능(스프링 기능)을 하는 물렁뼈(연골)가 닳아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관절염 환자의 83퍼센트가 40대 중반 이상인 것도 바로 이 때문.

퇴행성관절염은 행동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관절염 중에서도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듦에 따라 마모가 진행돼 끝내는 뼈가 맞부딪치게 되는데, 차츰 통증이 심해지다 염증이 생기고 관절의 운동기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관절에 물이 차 붓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뻣뻣해지며 움직일 때 삐걱대는 소리나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쯤 되면 통증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한다. 그보다 심해지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다리가 O자형처럼 휜다. 어깨나 팔목, 발목에 발병하면 뼈 자체에 기형이 오기도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되고 팔을 드는 것도 힘든 정도가 된다.

60대 이상 여성 절반 ‘만성질환 1위’ 관절염 앓아

사람마다 퇴행성관절염이 찾아오는 시기와 형태가 다른 이유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절을 다친 후 방치하거나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무리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관절에 가해지면 연골이 급속하게 마모되면서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관절염이 찾아온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팔목 관절에, 껌을 많이 씹는 사람은 턱관절에,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선수들은 팔, 다리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는 평범하고 지속적인 운동은 인대와 근육에 생긴 부상을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큰 지장이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이,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유독 관절염에 많이 걸리는 이유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재래식 화장실 이용, 걸레질, 김장, 세수 등이 바로 그것. 관절 연골은 여러 가지 마찰에 매우 잘 견디는 특성이 있는 반면, 반복적인 충격에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가만

관절염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1. 관절에 통증이 오면 즉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치료한다.
2.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수영, 고정식 자전거 타기가 좋다. 관절통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운동량을 줄인다.
3. 표준 몸무게를 유지한다.
4. 인스턴트 음식이나 육류 등에 포함된 지방은 염증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나친 섭취를 피한다.
5. 온찜질을 한다.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입욕하거나 핫팩, 전기담요 등을 쓴다. 갑작스럽게 악화된 관절염에는 냉찜질로 부종과 통증을 줄인다.
6.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를 피한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계단 이용을 자제한다.
7. 약물 사용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른다. 뼈주사(스테로이드)는 필요할 때만 맞는다.

히 서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다. 걸을 때는 몸무게의 4, 5배에 이르는 압력이, 쪼그려 앉아 있으면 10배의 압력이 무릎 연골에 실린다.

체중의 증가도 관절염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상대적으로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사람(예: 키 1백70센티미터, 체중 87킬로그램 이상)의 경우 정상체중(예: 키 1백70센티미터, 체중 70킬로그램)에 비해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4~6배 정도 된다. 체중을 5킬로그램 줄였을 때 관절염 발생 위험도는 50퍼센트 감소한다. 비만은 연골에 가해지는 부하 때문에 생기는 마모뿐 아니라 다른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비만인은 걸음걸이가 비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커 연골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 경우 연골 손상의 빈도도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비만은 관절에서 염증 관련 물질의 분비를 활발하게 한다.

쪼그려 앉기 등 피하고 올바른 자세 유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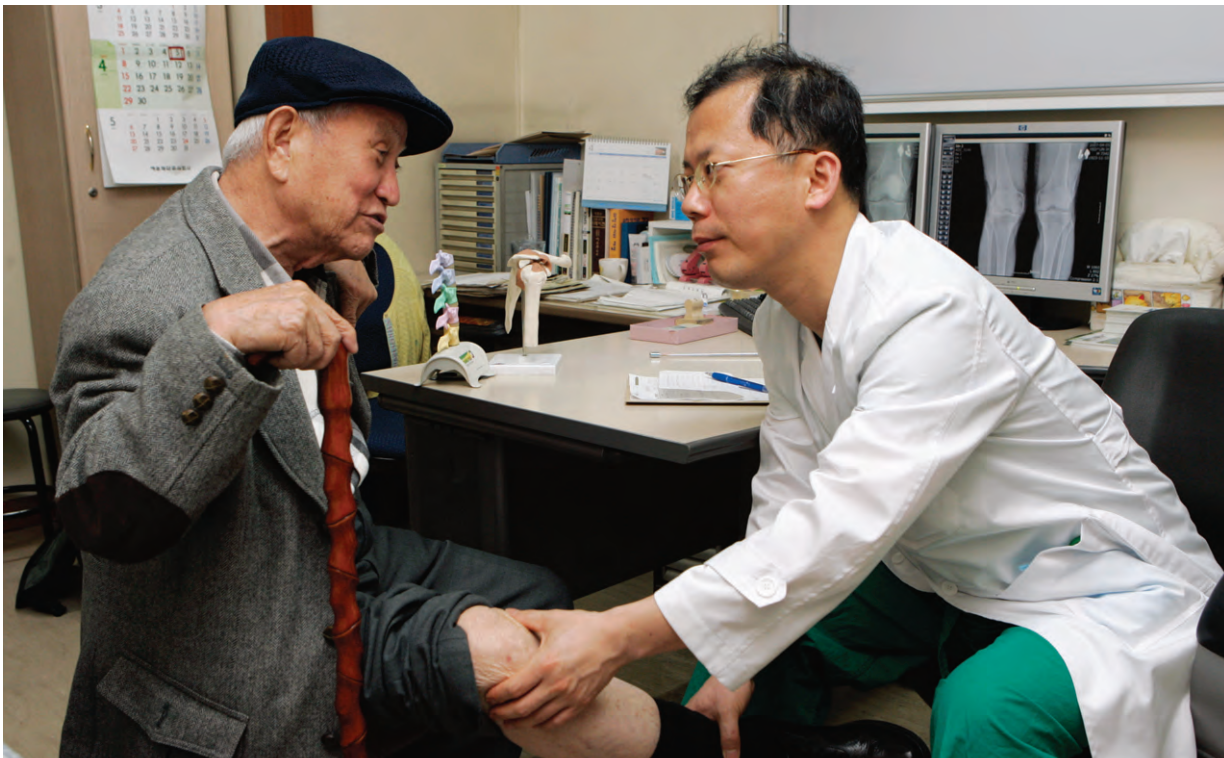
따라서 퇴행성관절염의 예방법은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유산소운동과 근육강화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울기가 낮은 흙산은 괜찮지만, 40대 이상이라면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돌산을 등산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가벼운 관절염이라면 실내 유산소운동(스트레칭,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과 근력

퇴행성관절염의 예방은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유산소운동과 근육강화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동(최대 부하량의 50퍼센트 수준), 약물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관절염이 조금 심하게 진행됐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각종 치료법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건강한 부위의 자기 연골을 떼어내 배양해 다시 넣는 자가골연골이식술과 혈액 성분을 연골로 분화시켜 손상된 부위를 덮는 미세천공술, 자신의 연골 세포를 이식해 연골을 재생하는 자가연골세포배양이식술 등이 바로 그것. 최근에는 혈소판의 신생혈관 재생과 상처치유 능력을 이용해 연골의 파괴를 막는 PRP 혈소판 주사요법도 각광을 받는다. 설사 연골이 다 닳아 뼈가 마주친다 해도 인공관절을 끼우면 최소 10년 이상 통증 없이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시술은 무릎관절뿐 아니라 엉덩이관절, 어깨관절에도 적용된다.

평균수명 80세 시대.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자세에 관심을 가지고, 적당히 운동하며, 살을 빼야 한다. G

글 · 최영철(주간동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과체중을 막는 것이다.

안동 퇴계 녀던길

나는 지금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낙엽 쌓인 오솔길을 지나는 퇴계 녀던길. 오른쪽으로 멀리 농암 종택이 보인다.

농암 종택 앞 낙동강변의 해질녘.

조선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1501~1570) 선생은 청량산을 유독 사랑했다.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가 무이산을 각별하게 여긴 것처럼, '동방의 주자'인 퇴계에게 청량산은 이상향이나 다름없었다. 태어난 지 일곱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읜 퇴계가 숙부 이우에게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곳도 청량산 중턱의 청량정사였다.

그리고 말년에 〈도산십이곡〉을 지은 곳도 청량산이었다. 퇴계의 영향을 받아 청량산을 둘러본 뒤 유람기나 시를 남긴 사람만도 백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신을 '청량산인'이라 칭한 퇴계는 〈청량산가(淸凉山歌)〉를 비롯해 여러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청량산(淸凉山) 육육봉(六六峯·12봉우리)을 아는 이
나와 백구(白鷗·흰 기러기)
백구야 날 속이랴 못 믿을손 도화(桃花·복사꽃)로다
도화야 물 따라 가지 마라 어주자(漁舟子·어부) 알까 하노라

퇴계는 을사사화(1545년) 이후 모든 관직을 사퇴했다. 고향인 도산으로 낙향해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은거하는 동안에도 수차례나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못해 단양군수나 풍기군수 같은 외딴 고을의 수령으로 잠시 관직을 맡은 적도 있다. 하지만 퇴계는 그것마저도 번잡스러워하며 50세 때 신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낙향했다.

57세 때부터 5년에 걸쳐 도산서당을 지은 퇴계는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진력하는 가운데서도 수시로 청량산을 오르내렸다. 도도히 흐르는 낙동강 물길과 어깨동무하며 걷던 퇴계 오솔길은 사색의 길이자 환상의 길이었다. 퇴계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이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했다.

퇴계·이육사·이현보… 문인들의 옛 정취 물씬

'퇴계 녀던길(옛길)'이라고도 불리는 퇴계 오솔길은 현재 경북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면천마을의 청량산전망대에서 가송리 농암 종택까지 3킬로미터가량 이어진다. 누구나 2시간 안팎이면 왕복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하고 짧아서 본격적인 걷기 여행코스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는 살아생전의 퇴계가 도산서당을 세워 후진 양성에 힘썼고, 사후에는 퇴계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享祀)를 지내는 도산서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도산서원에서 퇴계 종택과 퇴계 묘소를 거쳐 녀던길 시점(始點)인 청량산전망대까지의 거리는 6.2킬로미터.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를 걸어야 한다는 게 약간 불편하지만, 퇴계의 유적지를 고스란히 더듬으며 퇴계 녀던길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하지만 도산서원에서 퇴계 종택 사이 약 1.3킬로미터에 이르는 고갯길을 걸어서 넘기가 부담스러우면, 하루 네 차례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도산면 개인택시를 이용해도 된다.

도산서원에서 넘어온 고갯길이 끝나는 토계교를 건너 오른쪽 길로 5백 미터쯤 가면 퇴계 종택에 도착한다. 원래 도산면 온혜리의 노송정 고택에서 태어난 퇴계는 그곳에서 십 리쯤 떨어진 토계리 상계동에 분가해 살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퇴계 종택은 20세기 초에 13대 종손이 다시 지은 것이다.

퇴계 종택에서 다시 1.5킬로미터쯤 길을 더 가면 퇴계 묘소와 양진암 옛터가 있는 하계동에 이른다. 퇴계는 46세 때 양진암을 짓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현재 양진암 옛터에는 '養眞庵舊址(양진암구지)'라는 작은 빗돌만 덩그러니 서 있다. 퇴계 묘소는 양진암 터의 옆으로 난 계단길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퇴계의 명성에 비해 묘소는 의외로 소박하다. 묘 옆의 조촐한 비석에는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만년에 도산으로 물러나 은거했던 진성 이 공의 묘)'라는 글씨와 함께 퇴계가 손수 지었다는 간략한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하계동에서 야트막한 고갯길을 넘으면 도산면 원천리의 이육사문학관에 당도한다. 〈청포도〉 〈광야〉 등으로 유명한 항일시인 이육사(1904~1944)는 퇴계의 14대손이다. 육사의 여섯 형제가 태어난 육우당은 안동댐 건설로 안동시 태화동의 민속촌으로 옮겨졌다. 집터에는 육사의 시비(詩碑)와 빗돌만 남아 있고, 이육사문학관 뒤뜰에는 육우당의 복제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육사문학관에서 1.8킬로미터 거리의 단천교 삼거리로 가는 길에서는 낙동강이 아스라하다. 강은 멀고 길은 딱딱해서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는 구간이다. 녀던길은 단천교 삼거리에서 곧장 강을 따라간다. 하지만 단천교 앞에서 청량산전망대까지 낙동강 물길을 옆구리에 끼고 이어지는 1.7킬로미터의 강변길은 '무늬만 황톳길'이

도산면 원천리의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이육사문학관.

퇴계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 바로 앞의 건물이 퇴계가 5년에 걸쳐 완성한 도산서당이다.

다.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페인트칠을 해놓았다. 길가 경계석에 걸터앉았다가는 황토색 페인트 가루가 묻어나기 일쑤다.

청량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정도로 아름답다. 천삼백 리의 낙동강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조망이 탁월하고 풍광이 수려하다. 유장하게 흐르는 낙동강 물길 위로 학소대 암벽이 우뚝하고, 다시 그 뒤로는 하늘과 맞닿은 청량산 연봉의 실루엣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해발 8백 미터대의 청량산 선학봉과 자란봉 사이를 잇는 하늘다리까지도 또렷하다.

한 폭 수묵화 같은 설경… 독특한 운치 흠뻑

청량산 원경(遠景)뿐만 아니라 전망대 바로 아래의 강변 풍경도 그림처럼 아름답다. 왼쪽 산기슭에는 주인 잃은 농가 두어 채가 자리하고, 억새와 갈대 우거진 강둑에는 조붓한 퇴계 녀던길이 실낱처럼 드리워져 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퇴계의 수사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저절로 깨닫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망대 아래의 강변으로 이어지는 퇴계 녀던길은 무시로 폐쇄되기도 한다. 녀던길이 지나는 한 사유지의 주인이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동시청에서는 산자락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개설해놓았다. 하지만 강변길의 독특한 운치를 포기할 수 없는 나그네들은 땅주인의 눈을 피해 강변길로 내려선다.

전망대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서면 평지다. 말라버린 잡초와 억새 사이로 녀던길은 길게 이어진다. 강변길의 정취가 다채롭다. 둑길도 지나고 자갈길도 만난다. 공룡발자국 화석도 발견되고, 퇴

청량산전망대와 농암 종택 사이의 퇴계 녀던길 중간에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

계의 시를 새긴 시비도 눈에 띈다. 길의 정취에 취해 무심코 걷다 보니 농암 종택이 지척이다. 입춘조차 지난 늦겨울인데도 길에는 아직 낙엽이 수북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걱거리는 낙엽 소리와 여울을 타넘는 물소리가 듣기 좋다.

퇴계 녀던길 종점에는 농암 종택이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 문인 중 한 명으로 〈어부가〉 〈농암가〉 등을 지은 농암 이현보(1467~1555)의 후손이 지금도 산다. 농암의 원래 집터는 안동댐 건설로 물속에 잠기는 바람에 후손이 지금의 자리로 집을 옮겨왔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고 고택의 예스런 멋도 일품이어서 안동을 대표하는 고택 민박집으로 손꼽힌다. 농암 종택이 자리한 도산면 가송리에는 고산정이라는 옛 정자도 있다. 낙동강변의 기암절벽 아래에 자리 잡은 고산정은 풍광이 빼어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현재 퇴계 녀던길의 종점은 농암 종택이지만 옛날에는 청량산이었다. 농암 종택에서 낙동강 물길을 거슬러 5킬로미터쯤 더 가면 청량산 입구의 청량교에 도착한다. 도중에 고산정 앞을 지나기도 한다. 소싯적의 퇴계가 숙부에게 〈논어〉를 배우던 곳은 청량산 오산당이었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에 후손과 영남의 유학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오산당 터에 집을 다시 짓고 청량정사라 이름 붙였다.

청량정사로 가려면 청량사 아래의 선학정에서 곧장 오르는 길이 지름길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응진전을 거쳐 가는 길이 훨씬 더 좋다. 숨이 턱 멎을 만큼 뛰어난 전망과 아찔한 전율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오색단풍이 현란한 가을 풍경과 한 폭의 산수화 같은 겨울철 설경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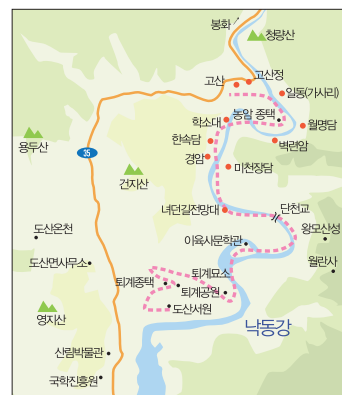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숙박 되도록 농암 종택(054-843-1202)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좋다. 종택 앞의 강변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퇴계 녀던길의 종점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수세식 화장실과 온수가 공급되는 세면장도 있고, 원할 경우에는 식사(1인당 6천원)도 제공된다. 청량산 어귀의 상가지구에는 청량산모텔(054-674-2267), 하늘정원펜션(054-674-2552), 황토방민박(054-673-9777) 등이 있고, 청량산 내에는 청량산폭포민박(054-672-1488), 들꽃피는펜션(054-672-1475), 판타지아 청량정(010-3303-0323) 등의 숙박시설이 있다.

맛집 도산면사무소 부근의 몽실식당(054-856-4188)은 소박하면서도 맛깔스러운 가정식 백반을 차려주는 집이다. 특히 콩잎장아찌, 우거지된장국, 명태코다리찜 등의 토속적인 반찬이 감칠맛을 더한다. 청량산 어귀에는 까치소리식당(간고등어정식, 054-673-9777), 나분들식당(손두부전골, 054-673-5450), 청량산식당(산채정식, 054-673-2560), 하늘정원식당(민물매운탕, 054-674-2552) 등의 음식점이 있다.

가는 길 **승용차** |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34번 국도, 안동 방면)→안동시내 천리교 북단(좌회전, 35번 국도)→도산서원 삼거리(우회전)→도산서원 주차장

대중교통 |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옆 교보생명 앞에서 도산서원행 67번 시내버스가 하루 5회 출발한다. 매시 출발하는 도산면소재지(온혜리)행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택시(도산 개인택시 054-856-1031, 1056, 1256)를 이용해도 된다. 온혜리에서 도산서원까지는 5천원 선.

21세기 한국은 어떻게 될까

100년 후

조지 프리드먼 지음 / **손민중** 옮김 · **이수혁** 감수 / **김영사 · 1만6천8백원**

다가올 1백 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안보·국제 전문 분석기관 '싱크탱크 스트랫포'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한 조지 프리드먼이 '향후 1백 년'을 예측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그는 그간의 정세 분석 노하우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백 년간의 미래 세계를 예측한 〈100년 후〉를 출간했다.

그는 '지정학'을 원리로 삼고 인구변동 추세와 기술 변화, 권력의 향방 등을 추가 변수로 해 21세기를 내다봤다. 프리드먼의 예측 방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다가온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향후 세계정세의 기초가 될 대륙별 지정학적 전선을 새롭게 구분하고 21세기의 정세 흐름을 구체적으로 짚어낸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프리드먼이 '21세기는 미국의 시대'라고 예측한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신이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데도 그는 힘의 균형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리라 주장한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 전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번 1세기도 미국의 시대… 폴란드 등 신흥 강국 떠올라

그가 가상하는 2050년 제3차 세계대전만 봐도 그렇다. 1백 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육지전쟁, 무기전쟁이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우주전쟁이자 통신전쟁이다. 미국은 2030년부터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고자 극초음속 비행기 시스템을 통제하는 우주기반사령부 '배틀스타(Battle Stars)'를 설치한다.

이에 맞선 일본은 2050년 11월 추수감사절에 배틀스타가 있는 우주를 선제공격한다. 배틀스타가 폭발하고 일본, 터키, 독일 등 연합군이 미국을 공격하지만 미국은 패망하지 않는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군사력, 경제력 등이 뿌리 깊게 연결돼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세계 2위인 일본의 2배 규모이며 인구밀도도 세계 평균을 밑돌아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프리드먼은 미국에 적수는 없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중요한 국가로 여기지만 중국은 시베리아와 히말라야, 정글, 고원, 사막 등에 막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게다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벌써 그 한계점에 근접해 있다고 지적한다.

> 프리드먼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가 그리 적지 않고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 위상은 통일 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프리드먼은 일본과 터키, 폴란드를 '떠오르는 신흥 강국'으로 예상한다. 일본은 원자재 수입 의존율이 높지만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았고, 터키는 세계 17위 경제대국이자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 앞으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닐 것으로 분석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지원해 예전 같은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프리드먼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7천만명으로 일본에 비해 그리 적지 않고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 위상은 통일 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일본, 중국, 러시아의 중간에 갇힐 수도 있고, 미국에게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평행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종석 녹색관광과장은 "〈100년 후〉에서 저자는 21세기에 세계 도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상황과 전쟁에 대해 풍부한 근거와 상상력으로 설득력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추천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배움의 기쁨

글과 그림 · 최영순

배움의 목적은 기쁨을 발견하고 만물을 사랑하며 정의를 목마르게 희구하는 데 있다.
– J.러스킨(영국 사상가)

뮤지컬 속 2월은 더욱 짧다

서울예술단 공연축제 ‘SPAC DREAM 2010’

일시 뮤지컬 ‘서랍이야기’ | 2월 10일 오후 4시, 8시
무용극 ‘룩킹 온(Looking On)’ | 2월 12일 오후 4시, 7시
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관람료 전석 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23-0986~7 www.spac.or.kr

서울예술단 단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스팩 드림(SPAC DREAM) 2010’이 2월 10일과 12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스팩 드림 2010은 서울예술단 단원들의 창작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쇼케이스를 통해 평단과 관객에게서 호응을 얻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일종의 공연 지원 프로그램. 서울예술단 단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연기뿐 아니라 대본, 연출, 음악, 안무까지 맡는다.

2월 10일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발견한 서랍을 소재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사연을 감동적으로 그린 뮤지컬 〈서랍이야기〉가 공연된다. 서울예술단 정유희 단원이 처음 연출한 〈서랍이야기〉는 2년 전 일간지에 실린 실화를 새롭게 각색해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 5인조 라이브밴드가 블루스와 재즈, 힙합, 모던록 등 29곡의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2월 12일 공연되는 〈Looking On〉은 잘못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현대인의 방관을 주제로 한 무용극이다. 서울예술단 김성연 단원이 안무와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사만(SAMAN)’이라는 전통춤을 한국의 전통놀이인 강강술래, 농악과 접목한 것이 이색적이다. 여기에 클럽, 갤러리, 패션쇼 등에서 화려한 스크래치 플레이로 인지도를 높인 DJ 코난의 현대적인 음악이 흥겹게 어우러진다.

서울예술단 박원묵 예술감독은 “올해 선보이는 두 작품은 실험적인 무대에서 벗어나 향후 서울예술단의 창작 레퍼토리로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며 “뮤지컬 〈서랍이야기〉는 정유희 단원의 섬세한 연출력과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고, 〈Looking On〉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춤으로 풍자한 무용극”이라고 귀띔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호랑이 화가 ‘이목일展’

일시 2월 11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
(금요일엔 오후 9시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갤러리7
관람료 무료
문의 580-1602 www.sac.or.kr

3년 동안 호랑이 그림 1만 점을 그린 ‘호랑이 화가’ 이목일의 각양각색 호랑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그의 호랑이들은 선이 유연하고 색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호랑이를 역동적이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동물이라기보다 다소 어눌하게 그려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동물임을 강조한다. ‘백두산 호랑이’ ‘설악산 호랑이’ ‘무등산 호랑이’ 등 친근한 작품 제목에서 그의 위트가 묻어난다.

인형극 ‘달래 이야기’

일시 2월 17~21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2시, 5시
(월요일엔 쉼)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4-9039~41 www.ntok.go.kr

국립극장이 어린이 우수공연 축제의 하나로 선보이는 인형극. 2003년부터 전쟁을 모티프로 인형극을 제작한 ‘예술무대 산’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인형극이 지닌 다양한 장점과 실험성을 보여준다.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섬세한 관절인형의 연기로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이야기한다.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족의 아픔을 극중극 형식으로 그려 재미를 더한다.

그린카드의 영광!

일반 축구경기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는 불명예스런 반칙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축구경기에만 있는 그린카드는 상대편 선수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도와주는 등,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나 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이옥형 감독은 6세 때 시각을 잃었지만
인생의 페어플레이를 실천한 진정한 '그린카드' 입니다.
스포츠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더 좋은 세종시

모든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입니다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산과 국토 발전에 효과가 큰 대기업과 대학이 입주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는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확산돼 전체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도시 · 혁신도시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시 성공 모델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분권 · 특화 · 상생의 원칙으로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완성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합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 올해도 4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경제권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시로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를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